

NEWS

한일경제협회 소식

■ CONTENTS

2017년 상반기 협회 주요 사업 안내

- 제36회 정기총회 & 회장단회의(이사회) ▣ 2017. 2. 14 ▣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 2017. 5. 16~5. 18 ▣
-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 2017. 3. 28~3. 29 ▣
-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안)

2016년도 하반기 사업실적

-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 2016. 7. 12~7. 14 ▣
- 제23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 2016. 7. 29~8. 3 ▣
- 제1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2016. 8. 30~9. 2 ▣
- 제2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2016. 10. 12~10. 14 ▣
- 2016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교류활동 & 환송회 개최
- 신임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 2016. 11. 14 ▣
- 제14회 회원사 간담회(일본시장 전문가 초청 세미나)
- 2016년도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개최결과

대일수출 전략품목

- 전자부품
- 자동차부품
- 화장품

일본경제동향

신규 회원사 소개

한일 통계

- 한일 교역·인적교류 현황 통계

회원가입 안내

한일경제협회 소식 제35호

발행인 | 김 윤
편집위원장 | 이종윤
편집위원 | 조덕모 · 김정호
간사 | 서광현 · 이유경
발행 |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18-4
한일재단빌딩 4F
TEL/ 02-3014-9888
FAX/ 02-3014-9899

인쇄인 | 강봉선
인쇄 | 웃고문화사
강원도 원주시 배말길 103-2
TEL/ 033-748-6577
FAX/ 033-748-5477

2017년도 회장단회의(이사회) & 제36회 정기총회 개최안내

2017년도 회장단회의(이사회) & 제36회 정기총회 개최(안)

- 일 시 : 2017년 2월 14일(화)
 - 이 사 회 : 2017. 2. 14(화) 10:30~11:20
 - 정기총회 : 2017. 2. 14(화) 11:30~13:00 (오찬 포함)

-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 이 사 회 : 롯데호텔(소공동) 36층 피콕스위트
 - 정기총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 부의안건 :
 - 이 사 회 : 제1호 의안 : 2016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제36회 정기총회 개최(안)의 건

 - 정기총회 : 제1호 의안 : 2016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선임(안) 승인의 건

※ 문의 : 서광현 대리 TEL : 02-3014-9886 / E-mail : khsuh@kje.or.kr



2017년도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안내 THE 49th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1969년 이래 한일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단체의 최고 경영자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 양국 기업 간 교류를 증진하고, 한일 간의 경제현안 사항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양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오는 2017년 5월 16일(화)~18일(목)까지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사업으로 개최되었던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16. 5, 도쿄)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2016년을 '한일우호·경제협력 원년'으로 정하고, 향후 50년을 향해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도 밀접하게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성장발전이 일본의 성장발전을, 일본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러한 상호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생산성 하락으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가운데 주요국들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시대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제시 할 예정으로 있사오니 경제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요 ▣

◇ 기 간	2017년 5월 16일(화)~18일(목) * 16일 단장단 예방
◇ 장 소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 테 마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의 방향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함께 열어요~ - 세션1 :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일협력 - 세션2 :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을 향해서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사회, 올림픽, 재해대책 등~
◇ 규 모	한일 양국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300여명
◇ 주 최	(사)한일경제협회, (일사)일한경제협회
◇ 협 력	산업통상자원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문의 : 김정호 부장 TEL : 02-3014-9877 / E-mail : jhkim@kje.or.kr
 서광현 대리 TEL : 02-3014-9886 / E-mail : khsuh@kje.or.kr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안내

– 대한민국 서울, COEX / COEX Intercontinental Hotel –

우리 협회와 한국무역협회, 일본의 일한경제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2017년 3월 28일(화)부터 29일(수)까지 이틀간 대한민국 서울, COEX / COEX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한일경제인회의 의제 상정

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한일 간 산업·무역·투자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한 실천적 문제 해결형 회의로,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 제언 및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회의는 '99년 10월 제1회 회의 개최 이후, 이번에 1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요 ▣

일 시	2017년 3월 28일(화) ~ 3월 29일(수)
장 소	대한민국 서울, COEX / COEX Intercontinental Hotel
주 최	한국측 - (사)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일본측 - (사)일한경제협회
규 모	한일 양국 체어맨, 코디네이터 및 위원 등 약 60명
미 셴	1. 한일간의 무역확대 2. 한일간의 투자확대 3. 한일간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4. 한일산업경쟁력강화 프로젝트

▣ 주요일정(안)

날짜	시간	행사내용
3/28(화)	12:05~14:25	일본측 단원 입국
	18:30~20:30	공동주최 환영리셉션
3/29(수)	09:30~09:55	개회
	09:55~10:35	코디네이터·양국 주최기관 인사
	10:35~11:50	세션 1 :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일협력
	11:55~12:55	오찬
	13:00~14:15	세션 2 :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을 향해서
	14:35~15:40	자유토론
	15:40~15:50	양측 코디네이터 총괄
	15:50~16:00	양측 체어맨 총괄
	14:40~15:10	토론
	15:10~15:30	폐회

※ 문의 : 김정호 부장 TEL : 02-3014-9877 / E-mail : jhkim@kje.or.kr
서광현 대리 TEL : 02-3014-9886 / E-mail : khsuh@kje.or.kr

▷ 2017년도 한일경제협회 주요사업 계획(안) ◁

월	일자	행 사 내 용	지 역
1	16(월)	제13회 일본경제포럼	서울
2	14(화)	회장단 회의(이사회)	서울 롯데호텔
		제36회 정기총회	서울 롯데호텔
3	28(화)~29(수)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서울 코엑스
4		주한일본대사 주최 간담회	서울
5	16(화)~18(목)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서울 롯데호텔
6		회장단·주한일본대사 친선교류활동	
		한일경제협회 회원사간담회	서울
7	24(월)~28(금)	한일산업인재육성사업/ 제24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강원도 평창군
8		제12회 한일학생미래회의	경기도 용인시
	27(일)~30(수)	제1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도야마
9		제14회 일본경제포럼	서울
10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서울
11		한일경제협회 회원사간담회	서울
		제15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일본 가고시마시
		제24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12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일본 동경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결과

- 2016. 7. 12(화) ~ 7. 14(목), 중국 장쑤성 옌청시 영빈관 -



▶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01년 제1회 회의 이후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환황해권 경제기술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
- 15년 간 한국 1,555명, 중국 1,864명, 일본 2,049명 → 합계 5,468명 참가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지난 7월 12일(화)부터 7월 14일(목) 3일 동안 중국 장쑤성 옌청시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국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조영태(曹永泰) 무역조사실장 등 84명, 중국측에서는 상무부 송 야오밍(宋耀明) 상무참사관 등 170명, 그리고 일본측에서는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 기시모토 요시오(岸本吉生) 국장 등 55명이 참가하였다.(전체計 309명)

한중일 3개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및 대학·기업 등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녹색경제·혁신성장과 개방·융합'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으며,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이 녹색경제와 혁신성장을 공동 실현할 수 있는 신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3국 지역 간 경제무역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환황해지역 경제의 융합발전 추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한중일 전기차 산업 협력, 스마트 제조혁신 협력을 중국측은 과

학금융서비스 협력, 중국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프로젝트 협력을 일본측은 큐슈관광 협력, 도시·농촌 비즈니스 교류 등 한중일 지역교류 확대를 위한 3국 상호협력제안사항으로서 총 6개의 협력 사업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연계 행사로 개최된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의료·바이오분야, 산업단지·물류분야, 신재생에너지분야의 비즈니스 교류 촉진·강화를 위한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3국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환황해 산업단지특구포럼」에서는, 한중일 3국이 산업단지 건설과 운영, 투자유치 관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산업단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역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촉진,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3국 지역 간 실질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환황해 총장포럼」에서는, 환황해 연안지역에서의 산학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산학관 협력 플랫폼 구축함으로써 프로젝트 정착을 촉진하고, 인재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15회째를 맞이하는 금번 회의는 21세기를 진정한 아시아의 세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컸다는 평가와 함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으며, 2017년 제16회 회의는 일본 큐슈 가고시마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JE**

▶ 회의 주요성과 ◀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배치 확정으로 한중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 든 정세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비즈니스포럼, 산업단지·특구포럼, 총장 포럼 등 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 협력 채널을 흔들림 없이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
- 3국 국장회의에서 한중일 3국 공동연구 21개의 제안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행 합의
 - 3국 공동연구 : (한) 가공식품·코스메틱·헬스케어 분야, (중) 산업단지·전자상거래·무역투자분야, (일) 재생에너지 분야
 - 3국 공로자 표창(기업 등 법인·개인부문, 지방공공단체·경제단체부문 각1명씩 총 6명에 대해 대상을 수여)으로 한중일 지역협력촉진의 동기부여·확산

- 1) 한중일 3국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투자 산업기술교류확대와 지역간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
 - 한중일 삼국이 과당경쟁 관계를 피하고 산업내 분업을 통해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
 - 한중일 환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발전과 경제교류 확산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3국간 무역·투자·기술·인재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1년 대비 3국 무역규모는 약 4배가까이 성장
 - * '01년 약1,600억 달러 → '15년 약5,700억 달러(한중일 3국의 전세계 교역비중은 12%에서 18%로 증가)
- 2)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을 향해 에너지·환경, 첨단제조, 전자상거래·물류·유통, 산업단지 특구, 인재양성 분야의 윈윈방안 제시 및 상호 공동번영을 통한 환황해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
 - 전기차산업 협력, 스마트 제조혁신 협력, 과학금융서비스 협력, 중국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프로젝트 협력, 큐슈관광 협력, 도시·농촌 비즈니스 협력 등 제안
 - 차기회의(제16회 환황해 회의)는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개최
- 3) 한중 기업 비즈니스 매칭
 - 한국 27개사, 중국 73개 기업 간 환경·자동차부품 등 157건의 비즈니스 매칭
 - 상담금액 : 6,892만달러, 성약가능 추정금액 : 570만 달러
- 4) 2015년에 이어 한중일 환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의 지속적인 표창 실현을 통해 환황해지역 발전과 경제교류확산의 분위기조성에 기여
 - 한국 27개사, 중국 73개 기업 간 환경·자동차부품 등 157건의 비즈니스 매칭
 - 상담금액 : 6,892만달러, 성약가능 추정금액 : 570만 달러

한일산업인재육성사업 제23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결과

— 2016년 7월 29일(금) ~ 8월 3일(수), 일본 미야기현 —

우리협회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가 공동 주최하는 한일 산업인재육성사업(제23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이 지난 7월 29일(금)~8월 3일(수) 일본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 호텔 칸요와 센다이 아크호텔 센다이 아오바도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캠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한일 양국 고교생들이 참여하여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체험형 경제교육 방식으로 열렸다. 한일 양국 혼성 8개 팀으로 구성, 5박 6일 합숙 하면서 동일본 대지진(쓰나미) 5주년을 맞아 양국 한일학생이 재해지역 부흥을 위해 지역 활성화, 관광진흥, 서비스, 요양·복지, 농업 등의 카테고리별 부흥현장과 일본경제현장을 체험해보고 새로운 부흥, 지역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기획, 발표까지 함께하는 체험 및 교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학생 23개교 40명, 일본 학생 32개교 40명(*합계 양국 55개교 80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의 사업 발표회에서는 'KIND GO'라는 사업 명으로 고령자 대상 간호, 복지사업 아이템을 기획한 7팀(준다준다)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미나미산리쿠를 알리기 위한 목

적으로 한 축제를 기획한 1팀과 요양·복지 전문 컨설턴트 사업을 기획한 3팀이 우수상을, 디자인과 QR코드로 특성화 시킨 미나미산리쿠의 물 판매 사업을 기획한 2팀이 심사위원 특별상을, 한국, 일본 양국의 유저들이 협력, 경쟁을 통해 농작물재배, 구입 및 판매까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기획한 8팀이 베스트 퍼포먼스상을, 농작물의 생산부터 가공·판매·홍보까지 담당하는 회사 설립하는 사업을 기획한 4팀이 모스트 임프레시브상을,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제공하는 사업을 기획한 5팀은 팀워크상을,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나미산리쿠 지역 가이드 서비스사업을 기획한 6팀이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출신의 OB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제11회 한일학생미래회의가 8월 18일(목)~22일(월), 일본 후쿠오카현 포트 힐스 후쿠오카에서 개최되었다. '한일 양국의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해결책 강구'라는 주제에 관련한 소주제 '고용, 가정과 아동학대, 교육, 복지, 그리고 윤리'에 대해 4박 5일간 연구, 발표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제11회 한일학생미래회의는 사회에 밀접한 여러 문제들을 한국과 일본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의견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내로 한정된 해결을 넘어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50년을 향해 미래의 한일의 주역인 양국 청소년들의 공동의 해결책 모색을 통해 우호증진 및 상호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한일 고교생 80명, 쓰나미 피해지역서 상생모델 찾다.

**제23회 한일 고교생 교류캠프 동행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6여년 아직도 쓰나미 피해복구 중 닷새간 농어촌 일손 돕기 등 진행
양국 학생들 창업아이템 발표시간 고령자 간호·복지 사업 등 아이디어 “조별 행동하면서 서로 깊이 이해해”**

요즘 일본 곳곳에선 마쓰리(축제)가 한창이다. 주민들은 수백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축제로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를 이기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야기(宮城)현 미나미산리쿠(南三陸)초에서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놀이가 6년 만에 열렸다. 어촌 주민들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개된 불꽃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80명의 고교생도 불꽃놀이를 함께 지켜봤다. 전날 도착해 처참한 대지진 피해 현장을 둘러본 조성민 학생(서울 경신고 1년)은 “쓰나미가 훑고 지나간 곳에서 자연재해의 무서움과 인간의 위대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기자는 이날 3일까지 동일본대지진 복구 현장에서 열린 ‘한·일 고교생 교류캠프’에 동행했다. 닷새간 이어진 농어촌 일손돕기 체험, 창업 아이템 발표회 등을 소개한다.



한일 고교생들이 미나미산리쿠 쓰나미 피해 현장에서 목병을 하고 있다.

◆ 미나미산리쿠, 지반 20m 높이기 공사 중

미나미산리쿠초는 대지진 당시 최대 20m가 넘는 높이의 쓰나미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 큰 피해를 입었다. 전체 주민 1만5000여명 중 832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중심부 건물의 80%, 전체의 62%가 유실됐다.

이 지역은 대지진 발생 전까지 도호쿠(동북) 지역을 대표하는 양식과 관광 명소였다. 지난 2일 새벽 묵은 간요호텔 6층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푸른 바다는 거대한 ‘바다 목장’이었다. 5년 반 전 호텔 2층 노천온천까지 쓰나미가 밀어닥쳤다고 설명하는 아베 노리코 여사장의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쓰나미가 몰려왔던 해안은 물론 내륙 곳곳에서 산을 깎아 지반을 높이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다카하시

가즈키요 미나미산리쿠초 산업진흥과장은 “2011년 수준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다시 와도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지반을 20m 높이고 있다”며 “공사 기간을 10년으로 계획했으나 현재 속도라면 완공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구 일정이 지연되면서 집을 잃고 가설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상업시설이나 쇼핑시설도 없어 임시 장터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 한·일 고교생, 공동 창업 아이템 개발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일 고교생 교류캠프’는 올해 23회째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려면 청소년들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994년 1월 도쿄에서 처음 열렸다. 양국의 경제현장을 둘러보고 공동 작업을 통해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발표하는 형식이다. 고레나가 가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는 “양국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협업을 통해 리더십을 키우는 게 교류캠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두 나라 학생들은 낯선 농어촌 일손 돕기, 요양시설 방문 등으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양국에서 5명씩 10명으로 구성된 8개팀은 한국과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이템을 짜내느라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다. 캠프 4일째 마을회관에서 열린 사업 발표회에서 고령자 대상 간호, 복지사업 아이템을 제시한 ‘카인드 고(Kind Go)’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 측에선 권성호(마포고), 안영웅(금오공고), 박경현 이혜민(원주의료고), 김하연(전주기전여고) 학생이 팀에 참가했다.



교류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이 1일 사업 발표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이타마현립 후도오카고에서 참가한 히라타 미오 학생(1년)은 “함께 공부하면서 글로벌 감각을 지닌 한국 학생들의 장점을 많이 발견했다”며 “앞으로 농업 분야에서 한·일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양국 학생들이 다른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서로 차이점을 느꼈을 것”이라며 “팀플레이를 통해 하나의 공동 결과물을 낸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2016-08-05/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
janus@hankyung.com

제1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 2016년 8월 30(화) ~ 9월 2일(금), 일본 도야마현 -



우리나라 동해안 4개 자치단체(대구·울산·강원·경북)와 일본 호쿠리쿠(北陸3県 : 토야마·이시카와·후쿠이)지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지난 8월 30일(화) ~ 9월 2일(금),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 다이이치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본회의는 양국 파트너십 강화 및 산학기술 협력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일본 호쿠리쿠지역(이시카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과 함께 개최하고 있는 회의이다. 2000년 7월 일본 토야마현에서 개최된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국간 교류는 17년간 2,818명(한국 1,120명, 일본 1,698명)이 참가해 양국 지자체간 MOU체결 및 192개의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했고, 기업 간 377건 4천390만달러(*2012년 기준)의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하는 등 지역 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해왔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정부 대표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철(李旼澈) 통상협력심의관 및 하타노 아츠히코(波多野 淳彦)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하여, 양측 6개 지방자치단체(울산, 경북, 대구, 이시카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등 경제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241명이 참가하였다.

한일 양국의 경제현안을 살펴보고 향후 공동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이번 회의는 지자체 분과회, 기업 상담회와 의료클러스터 미팅으로 나누어 개최되었으며, 유관기관 및 기업 간 사전 매칭작업을 통해 개별 미팅도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일 하나의 경제권 공감대 형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벤치마킹'(산업진흥·고령화·관광), 의료클러스터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한일경제협력의 긴밀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호쿠리쿠 3현의 세어 TOP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및 한국 청년인재 채용 홍보로 일본시장 개척과 해외 일자리를 창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 ▶ 한국 23개사, 일본 15개사 총 38사 50건 상담실시 (상담금액 69만달러)
- ▶ 호쿠리쿠지역 기업 초청, 한국청년 취업 상담회 개최 추진(10/28, 서울)

또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후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향후 50년도 지역 간 협력·산업 간 융합으로 한일이 공동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의한 회의가 되었으며, 한일 공통의 과제(인구감소, 산업육성, 지역인재의 정착, 관광활성화, 고령화 대책 등)에 대한 정책공유·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의료 클러스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제18회 차기 회의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개최 예정이며, 한일이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지자체·경제단체·기업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 편성하기로 하였다. ㉞

▶ 회의 주요성과 ◀

-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 관계 첫걸음의 구축’을 테마로, 한일 하나의 경제권 공감대 형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벤치마킹’(산업진흥·고령화·관광), 의료 클러스터간 네트워크 구축 등 한일경제의 긴밀화에 기여
 - 산업경쟁력강화 정책·고령화시책 공유, 대한투자유치 설명, 의료클러스터 협력(원주·호쿠리쿠·센다이), 고령자 요양사업 투자유치(훗토리허빌리티시스템즈) 등
- 호쿠리쿠 3현의 세어 TOP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및 한국 청년인재 채용 홍보로 일본 시장 개척 및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한국 23개사, 일본 15개사 총 38사 50건 상담실시(상담금액 69만달러)
 - *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0년 대비 양국 무역규모는 약 2.8배가 성장
 - ’00년 543억엔 → ’15년 1,539억엔(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 3개현)
 - 호쿠리쿠지역 기업 초청, 한국청년 취업상담회 개최 추진(10/28, 서울)

- 1) 환동해권 4개지역과 호쿠리쿠 3현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한·일 하나의 경제권 구축의 공감대 형성
 - 도야마현 지사 예방, 경제교류회의, 지자체·의료클러스터간 분과회,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호쿠리쿠 관계기관·기업과의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세계적으로 흐름이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 가운데, 대외지향적 성장을 추구하는 한일 양국은 정책공조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
- 2) 한일 지방경제 활성화정책 공유 및 상호 윈윈하는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제안
 -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 관계 첫 걸음의 구축’을 테마로 세미나 형식의 전체회의, 지자체 분과회·의료클러스터 분과회로 나누어 회의 개최
 - 지역이 중심이 된 산업진흥정책과 고령화대책을 주제로 하여, 우리나라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지역별 핵심 중추사업 지원) 및 호쿠리쿠 산업경쟁력 강화전략(생명과학·고기능 신소재 관련 산업육성, 호쿠리쿠경제권 구축, 인바운드 관광 육성)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지방정부의 공통 과제로서 고령화에 대한 각 지자체의 정책 공유
- 3) 호쿠리쿠 3현의 세어 TOP 기업과의 비즈니스매칭 및 한국 청년인재채용 홍보로 일본시장 개척 및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한일 기업간 교류 촉진을 위해 일본 호쿠리쿠 세어 TOP 100대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 한국의 청년실업 해소 및 일본기업의 우수인재 채용 등 상호 Win-Win협력을 통한 양국간 인적 네트워크 및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 호쿠리쿠지역 기업 초청, 한국 청년 취업상담회 개최 추진(10/28, 서울)
- 4)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호쿠리쿠라이프사이언스클러스터, 지식과 의료 기기창업 미야기현 에리어 간에 아시아 시장 공동진출을 향한 한일 의료클러스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식과 의료기기창업 미야기현 에리어에서 강원의료기기대전(GMES2016)에 대한 출품 검토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호쿠리쿠 라이프사이언스클러스터의 제휴는 하나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제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색
- 5) 안동MBC :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을 찾아서’ 특집방송 방영
 - 지방소멸 위기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

제2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 2016. 10. 12(수) ~ 14(금), 일본 후쿠오카현 -



▶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는 '93년 11월 제1회 회의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양국 지역간 산업협력 발판을 마련
- 23년간 한국 1,145명, 일본 1,483명
합계 2,628명이 참가

제2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가 지난 10월 12일(수) ~ 10월 14일(금) 3일 동안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개최되었다.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는 한국측에서는 이민철(李旻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회 등 46명(본회의 46명, 상담 16개사), 일본측에서는 키시모토 요시오(岸本吉生) 큐슈경제산업국장 등 53명(본회의 53명, 상담 19개사)이 참가하였다.(전체 합 99명)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헬스케어 산업분야에서의 한일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션1에서 한국측은 동국대학교 생명공학과 김성민 교수가 '한국 의료기기산업 현황 및 국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일본측은 이이츠키시 경제부 타나카 아츠시 부장이 'e-ZUKA발, 의공학 제휴의 실시'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세션2에서는 한국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김규관 일본팀장이 '한일간 헬스

의료 산업의 협력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일본측은 (주)트루밸런스 야마시타 츠미노리 대표이사가 'e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체험형 건강의학교실 사업'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테마별 각 발표자에 대한 대표 코멘트에서는 한국측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임용훈 팀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최영호 대구본부장, 일본측은 큐슈공업대학 대학원정보공학연구원 쿠라타 히로유키교수, (공재)큐슈경제조사협회 미나미 신타로 주임연구원이 코멘트로 참여하였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한일경제협회와 큐슈경제연합회 공동으로 큐슈일한경제교류회 등의 협력을 얻어 헬스케어 산업분야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도 병행 개최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 한국 16개사, 일본 19개사 총 35개사 59건의 상담실시, 상담금액 146만 달러

본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이후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향후 50년도 지역간 협력·산업 간 융합으로 한일이 공동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회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의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양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공동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본 회의는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미나와 상담회를 병행 추진키로 하고, 2017년 제24회 회의는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제16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와 동시 개최키로 하였다. 

▶ 회의 주요성과 ◀

- 한일 양국이 동시에 직면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방안 제시
- 지역 의료산업 클러스터 홍보 및 상호 협력방안 소개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 수성의료지구
- 일본 헬스케어산업 관련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으로 일본시장 진출에 기여
 - 한국 16개사, 일본 19개사 총 35개사 59건 상담실시(상담금액 146만달러)
 - * 2015년 한·규슈 무역액은 9,836억엔으로 한·일 무역액(8조2,270억엔)의 12% 차지

- 1) 한일 양국이 동시에 직면한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헬스케어 산업분야에서의 한일 협력방안 제안
 - 여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수명을 늘리는 초고령사회 대처가 중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일 협력 필요
 - 한일 간 헬스의료산업에 대한 협력 잠재력이 크며, 의료클러스터간 협력 강화를 통해 의료기기 R&D협력·의료기기 인증관련 협력체제 구축 등의 사업추진
 - *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와 일본 동부규슈메디컬밸리 협력
 - 일본기업의 정밀가공기술·제조기술의 강점과 한국의 ICT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여 제3의 비즈니스 발굴에 협력
 - * 고독사 방지 안심케어 서비스, 혈관확장 기술 등
- 2) 지역 의료산업 클러스터 홍보 및 한일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방안 제안
 - 국제 공동연구 개발을 통한 의료기기 분야 한일 조인트벤처 설립,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과 한국의 의료중견 기업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
- 3) 일본의 헬스케어산업 관련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으로 일본시장 개척에 기여
 - 한국 16개사, 일본 19개사 총 35개사 59건 상담실시(상담금액 146만달러)
- 4)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상황별 대처 사례 및 요양시설 운영 노하우 공유
 - 기업 현장에서의 대처사례 : 항공사 및 호텔에서의 고령자, 응급환자 대응
 - 요양시설 운영 : 요양시설에서의 인사 매니지먼트, 시설내에서의 음식개혁, 치매케어 전문가 확보 및 활용 시책
- 5) 산업시찰을 통해 선진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과 관련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선메디렉이이즈카, 야스카와전기 로봇마을 등

2016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교류활동 & 환송회 개최결과

- 2016. 6. 22(목), 남서울 컨트리클럽 -

우리 협회 회장단은 주한일본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SJC 관계자를 초청하여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며 경제협력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6월 22일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UN대사로 부임하는 벳쇼 고로(別所 浩郎) 주한일본대사의 환송회를 겸한 친선교류 활동을 남서울 컨트리클럽에서 가졌다.

한국측에서는 김 윤 회장, 박상진 부회장, 하영봉 부회장, 이일규 상임이사, 이수철 상임

이사, 이영관 상임이사, 최우각 상임이사, 이종윤 상근 부회장등 8명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주한일본대사관 벳쇼 고로(別所 浩郎) 대사, 하토리 다카시(羽鳥 隆) 경제공사, 사토 마사루(佐藤 勝) 공보문화원장, SJC 미키 아츠유키(三木 篤行) 이사장 등 4명이 참석하였다.

친선활동 후에는 오찬 간담회를 통해 최근의 한일관계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함께 벳쇼 고로 대사를 위한 환송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단체사진〉



〈오찬 및 환송회 단체사진〉

신임 주한일본대사 초청 회장단 만찬 간담회 개최

- 2016. 11. 14(월), 롯데호텔서울 36F 벨뷰스위트 -



지난 11월 14일(월), 8월 중순에 신규 부임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특명정권대사와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만찬간담회를 롯데호텔서울 36F 벨뷰스위트에서 개최하였다.

우리 협회 회장단에서는 김윤 (사)한일경제협회 회장((주)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하여 박삼구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희용 부회장(동양물산기업 회장), 박인구 부회장(동원그룹 부회장), 서민석 부회장(동일방직(주) 회장), 하영봉 부회장(GS에너지 대표이사), 윤종규 부회장(KB금융그룹 회장), 이종운 (사)한일경제협회 상근 부회장 등 16명이 참석하였고, 주한일본대사관측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신임 특명정권대사를 비롯한 스즈키 히데오(鈴木 秀生) 차석공사, 하토리 타카시(羽鳥 隆)경제공사, 마루야마 코헤이(丸山 浩平) 총무공사, 키타가와 가츠로(北川 克郎)정무 공사, 오오즈카 츠요시(大塚 剛) 영사 부장 등 6명이 참석하여 한일 양국 간의 협력 분위기 조성 및 경제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교환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한일중 경제통

상장관회의를 비롯하여 한일중 정상회담 추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일관계가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어 그 기대가 크다”고 말하고 “불투명한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난 5월 제48회 한일경제인 회의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이 주도하여 아시아경제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아시아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공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또한 “21세기 한일관계의 키워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치·외교·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구축을 위해 주한일본대사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께서 부임 후 어려웠던 한일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계시는 동안 협력 파트너 관계가 돈독해지길 기대한다”며, “트럼프 당선 후 세계는 더욱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한일은 더욱 협력 파트너십을 굳건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TPP 진전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러한 때 일수록 한일 FTA도 속도를 내고 진전되길 기대하며 2018 평창동계 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양국 간 왕래 1,000만명 교류 시대가 도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OE**

제14회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간담회 개최결과

- 2016년 11월 25일(금), 무역센터 51F 대회의실 -



지난 11월 25일(금),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제14회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간담회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본 간담회는 한일 간 이슈 등에 대한 일본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對 일본 관심도 제고 및 정보 제공, 협회 회원사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중윤 (사)한일경제협회 상근 부회장은 개회인사에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로 우리나라에도 장기불황의 우려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일본의 장기불황 대처 사례와 일본식 기업경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경제계로서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 아울러 “이번 세미나가 참가자들의 기업경영과 글로벌시장 진출 그리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였다.

제1세션에서 ‘일본의 불황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가 일본이 불황기에도 대외자산이 늘

어난 배경(대외 순자산과 해외소득, 경상수지와 소득수지, 해외현지 생산비율)설명과 함께 한일의 기업비교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인건비, 연구개발비)와 근로자비교(취업률, 노동 시간, 사망률)를 통해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강연을 하였다.

이어서 제2세션에서는 ‘재미있고 영뚱하게 경영론’과 ‘도요타 혼’이라는 주제로 주요 일본기업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고다와리(拘り)”와 도요타자동차의 현장을 위한 제품생산, 호리바제작소의 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을 통해 우리기업이 지향할 경영방침을 제시하는 오태현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본 간담회에서는 저성장을 先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일본 굴지의 기업인 도요타자동차와 호리바제작소의 경영방침을 설명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합리적인 경영과 직업 정신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참가자의 평가를 받았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서비스의 일환인 ‘회원사 간담회’를 통해 한일관계에 저명한 국내외 인사의 강연 및 정보 제공, 협회 사업 안내, 회원사의 요망사항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물론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여 보다 유익하고 발전성 있는 회원사 간담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2016년도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개최결과

- 2016년 12월 8일(목) ~ 10일(토), 서울/강원도 -

우리 협회는 일본측 카운터 파트너인 일한 경제협회와의 2016년도 정례업무협의를 지난 12월 8일(목)~10일(토) 서울 및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측은 이종윤 상근부회장, 조덕모 사무국장 등 5명이, 일본측은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전무이사, 기무라 신이치로(木村 慎一郎) 이사 등 4명이 참석하였다.

금년은 양국 협회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달려온 한해였다고 자평하고, 내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사업으로 개최되었던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16. 5, 도쿄)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2016년을 '한일우호·경제협력 원년'으로 정하고, 향후 50년을 향해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도 밀접하게 아시아의 발전에 기

여해 나가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양 협회가 그 중심에 서서 우호증진 및 경제협력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음을 자부하고, 향후에도 양국 경제 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가는 것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향후 50년을 위해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증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협회는 내년도 사업인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비롯하여 제18회 한일신산업 무역회의, 한일산업인재육성사업(제24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등 양협회 주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마쳤으며, 2017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2017. 3. 28~3. 29, 서울 코엑스)와 한일산업인재육성사업(제24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2017. 7. 24~7. 28 강원도 평창)에 대한 현장 답사도 실시하였다. 



전자부품 시장

〈포인트〉

-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한국의 對세계 전자부품 수출은 2010년 이후 성장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수량은 증가하면서 금액은 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단가 인상을 위한 전자부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임
- 일본은 전자부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전자부품업체의 해외진출에 기인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선진국의 스마트폰 시장을 기대하기 보다는 차세대 자동차의 다양한 기능보완에 필요한 전자부품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한국 전자부품의 일본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자부품업체와의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 일본 전자부품업체와의 연계는 일본 시장뿐 아니라 다른 해외시장 공략에도 도움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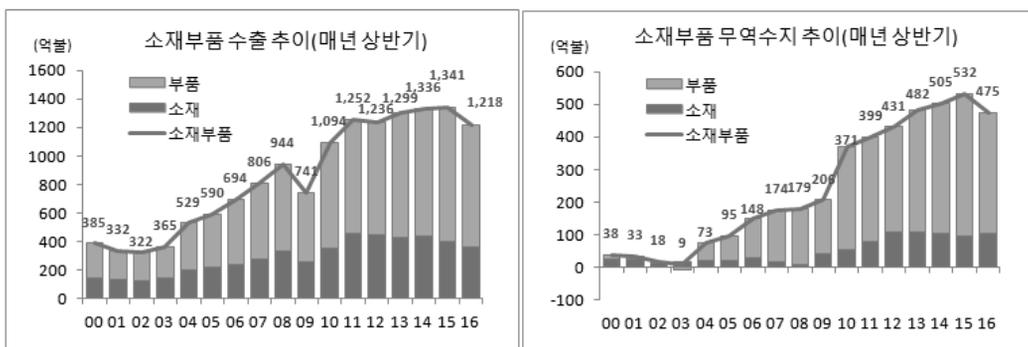
1. 한국의 수출동향

해보면 수출은 전년대비 9.2% 감소한 1,218억 달러를 기록, 이는 총 수출(2,418억 달러)의 50.4%를 차지하고 있음

1) 수출동향

- 2016년 상반기 한국의 소재·부품 교역을 살

〈그림1〉 한국의 소재·부품 수출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서 작성

- 지역별로는 일본(61억 달러, 전년대비 Δ1%)과 더불어 중국(397억 달러, Δ14.9%), 중남

미(58억 달러, Δ23.0%), 중동(56억 달러, Δ19.4%)등 對세계 소재·부품 수출이 감

소했으나, 베트남만은 증가(98억 달러, 15.1%)했음

고 베트남 제조업 투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임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

〈표1〉 한국의 소재·부품 지역별 수출 실적

(단위: 억 달러)

구분	전세계	중국	일본	중동	유럽	미국	중남미	아세안	베트남	기타
2015년 상반기	1,341	467	62	69	143	137	75	195	85	194
2016년 상반기	1,218	397	61	56	145	136	58	195	98	170
증감액	△123	△70	△1	△13	2	△1	△17	0	13	△24
증감률(%)	△9.2	△14.9	△0.7	△19.4	1.5	△0.8	△23.0	0.1	15.1	△12.2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서 작성

□ 소재·부품을 구체적인 품목별로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전자부품(400억 달러, △15.0%)은 화학제품(180억 달러, △8.3%)과 더불어 감소했으나,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27억 달러, 2.4%)은 소폭 증가했음

○ 전자부품은 수출 물량은 증가했으나 단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은 물량 감소에도 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출이 증가했음

〈표2〉 주요 부품의 수출 실적(단위: 억 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금액	단가	금액	단가	상반기	하반기	금액	단가		
부품										
조립금속제품	49	8.1	49	△0.7	24	△1.4	25	0.0	24	△1.3
일반기계부품	250	9.0	242	△3.1	125	1.4	117	△7.6	117	△6.6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45	3.7	51	13.0	26	28.2	25	0.7	27	2.4
전기기계부품	238	△6.3	245	3.2	123	6.6	122	0.0	120	△2.3
전자부품	932	10.1	937	0.5	471	8.0	466	△6.0	400	△15.0
정밀기기부품	61	△1.2	56	△8.0	27	△5.0	29	△10.8	26	△4.0
수송기계부품	304	3.1	294	△3.3	147	△3.8	147	△2.9	139	△5.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서 작성

〈표3〉 주요 부품의 수출 실적 및 단가 변화 (2016년 상반기 실적)

구분	금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감률 (%)	단가 ('10=100)	전년대비 증감률 (%)	종량 (만톤)	전년대비 증감률 (%)
전자부품	40,026	△15.0	141.3	△23.5	283	11.1
화합물 및 화학제품	18,016	△8.3	88.0	△8.2	205	0.1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2,658	2.4	349.8	12.7	8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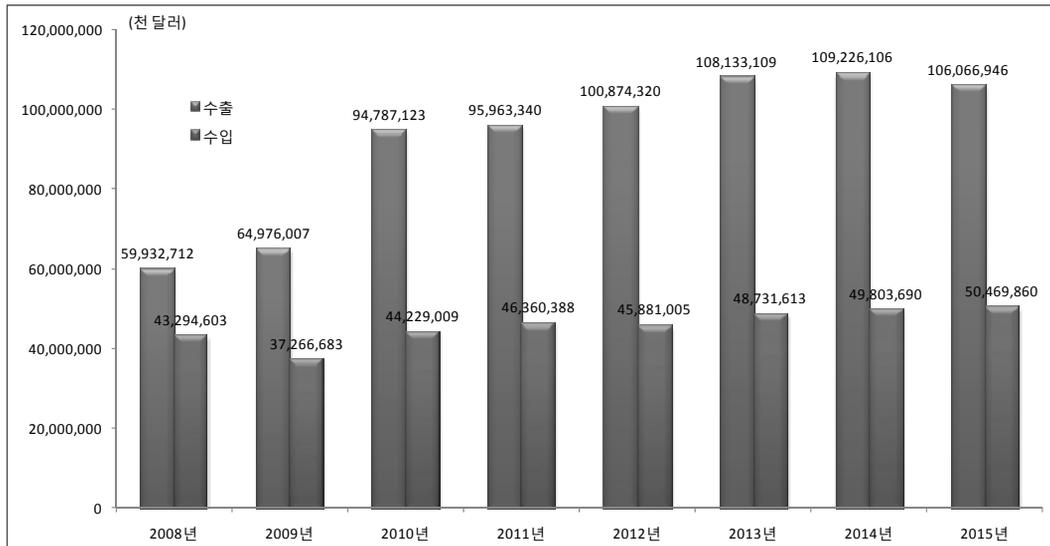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서 작성

2) 증감요인 분석

□ 2008년 이후 한국의 전자부품 對세계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성장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입 규모 역시 큰 변화 없이 수출의 약 절반 수준을 유지하며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전자부품의 수출 증가는 고부가가치화에 따른 단가 인상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2〉 한국 전자부품(MTI, 83) 對세계 수출입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서 작성

□ 한편 2016년 상반기 對日 소재·부품 무역적자는 약 6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對日 소재·부품 수입의존도는 17.1%를 기록했음

- 소재·부품의 對日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對日 수입의존도 역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표4〉 소재·부품 對日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16년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對日 수입의존도	18.1%	18.2%	16.9%	16.1%	17.1%
對日 수입액	150.1	154.5	137.1	126.6	127.2
소재부품 총수입	830.7	850.9	808.9	787.5	742.4
對日 무역적자액	△79.4	△84.5	△75.3	△66.3	△65.8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서 작성

- 한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對중국 소재·부품의 수출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2.2%p 하락한 32.6%를 기록했다(對中 수출 집중도 완화됨)
 - 중국의 해외수출이 부진했고 자급률이 상승하는 등의 요인으로 전자부품(188억 달러, Δ19.0%)의 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했음
 - 2016년 상반기 소재·부품의 대중국 무역흑자액은 189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음

〈표5〉 소재·부품 對중국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16년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對中 수출 집중도	33.8%	35.3%	34.8%	35.9%	32.6%
對中 수출액	450.9	502.0	466.8	468.2	397.0
소재부품 총수출	1,335.6	1,423.8	1,341.2	1,304.8	1,217.8
對中 무역흑자액	213.2	254.3	231.4	234.0	189.4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서 작성

-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소재·부품의 지역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1위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
 - 2014년 상반기에 미국에 이어 3위에 올랐던 일본은 2015년에 5위로 밀려났고 2016년에도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소재·부품산업의 제3위 수출 시장으로 베트남이 급부상하고 있음
 - 베트남은 2014년 상반기에 4.3%에서 2015년 상반기에 6.3%로 비중이 늘어났고, 2016년 상반기에는 8.0%를 차지함

〈표6〉 소재·부품 수출 비중 추이

	1위	2위	3위	4위	5위
2014년 상반기	중국(33.8%)	미국(9.6%)	일본 (5.3%)	홍콩(5.2%)	베트남(4.3%)
2015년 상반기	중국(34.8%)	미국(10.2%)	베트남(6.3%)	홍콩(5.5%)	일본 (4.6%)
2016년 상반기	중국(32.6%)	미국(11.2%)	베트남(8.0%)	홍콩(5.6%)	일본 (5.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서 작성

2. 일본의 對세계 수입시장 동향

1) 생산동향

- 일본의 전자공업제품을 민생용기기, 산업용기기, 전자부품·디바이스(이하 전자부품)로 구분하면 주력상품은 전자부품임
 - 일찍이 일본은 컬러TV, 비디오기기 등의 이른바 민생용기기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시절이 있었음
 - 그러나 지금은 TV 등 영상기기, PC, 휴대전화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진 상품은 찾아보기 어려움

-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가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일본의 전자공업 생산액(12조 4,040억 엔)중 전자부품·디바이스(8조 1,348억 엔)가 전체의 65.6%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민생용전자기기(5.39%)와 산업용전자기기(29.0%)의 비중보다 큰 규모임
- 2000년 당시와 비교해 보면 일본의 전자공업 생산액은 약 절반으로 줄어든 규모임
 - 일본의 전자공업 생산액은 일관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에 26조 1996억 엔의 생산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15년 사이에 생산규모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임

〈표7〉 일본의 전자공업 세부제품별 생산액 추이(단위: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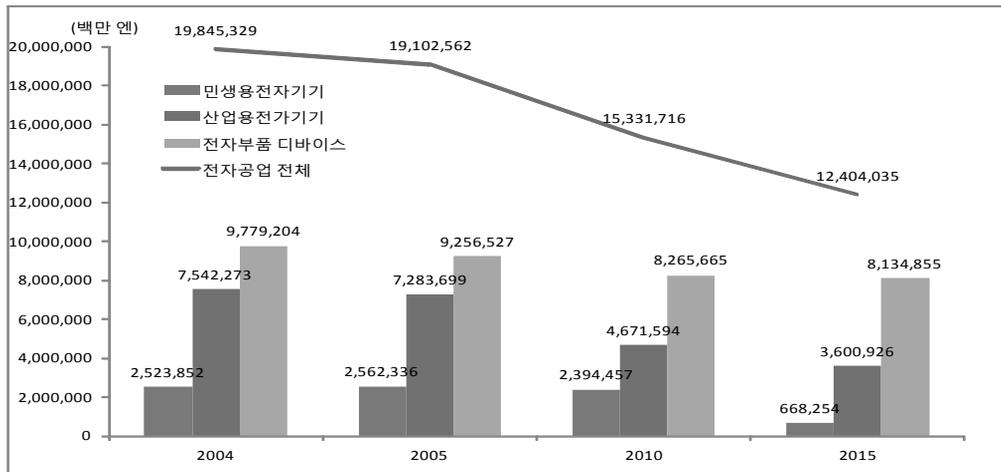
품목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민생용전자기기	2,523,852	2,562,336	2,394,457	668,254
산업용전자기기	7,542,273	7,283,699	4,671,594	3,600,926
통신기기	3,000,229	2,970,385	1,713,551	1,206,291
유선통신기기	689,564	698,349	483,863	306,368
무선통신기기	2,310,665	2,272,036	1,229,688	899,923
전자계산기 및 정보 단말기	2,596,422	2,341,656	1,568,766	1,077,060
전자응용장치(전자계산기 및 관련 장치 제외)	907,458	999,782	873,206	826,404
전기계측기	661,303	598,630	406,900	386,445
사무용기계	376,861	373,246	109,171	68,726
전자부품·디바이스	9,779,204	9,256,527	8,265,665	8,134,855
전자부품	2,961,869	2,948,051	2,671,695	2,643,916
수동부품	895,206	892,805	892,886	1,058,172
집속부품(전자회로기관 제외)	797,937	812,123	833,957	748,454
전자회로기관				515,062
전자회로실장기관	821,009	834,330	725,160	130,329
변환부품	70,285	57,400	23,550	23,894
기타 전자부품	377,432	351,393	196,142	168,005
전자디바이스	6,817,335	6,308,476	5,593,970	5,490,939
전자관	327,368	303,845	236,547	47,621
반도체소자	1,071,478	1,061,125	1,131,728	921,012
집적회로	3,619,093	3,287,951	2,679,951	2,339,821
액정디바이스	1,799,396	1,655,555	1,545,744	2,182,485
전자공업 합계	19,845,329	19,102,562	15,331,716	12,404,035

자료: JEITA 홈페이지 발표 자료(전자부품 생산 통계)를 근거로 작성

- 그러나 전자공업 분야 중에서 생산의 감소폭이 가장 작은 것은 전자부품·디바이스 분야임
 - 민생용기기, 산업용기기, 전자부품·디바이스 모두 다 생산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임

- 2015년의 생산액을 2000년 당시와 비교해 보면 민생용기기, 산업용기기는 약 30% 정도의 수준까지 감소한 상태임
- 이에 반해 전자부품·디바이스는 감소는 했지만 약 64%의 감소하는데 그쳤음
- 일본의 전자공업 생산액의 약 60%는 전자부품·디바이스가 차지하고 있음
 - 전자공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전자부품·디바이스의 비중은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00년대 전반에는 약 40%였으나 2006년에는 50.1%, 2015년에는 65.6%로 높아졌음
-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일본의 전자공업 제품 중에서 전자부품·디바이스의 감소폭이 작다고는 하지만 일본 국내생산은 감소하는 추세임
 - 일본의 전자부품업체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생산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 일례로 애플과 거래를 하고 있는 주요 일본기업 39개사의 주요 사업소 중, 일본 국내가 116개 사업소인데 반해 동아시아 지역(일본 제외)에는 117개 사업소로 일본 국내 사업소 수보다 많음

〈그림3〉 일본 전자공업 생산액 추이



자료: JEITA 홈페이지 발표 자료(전자부품 생산통계)를 근거로 작성

- 일본의 전자정보기술협회의 통계(생산동태 통계)를 보면 2014년 생산액은 10년 전의 2004년 대비 77%, 2010년 대비 91% 수준임
 - 전자부품 중에서 특히 국내 생산액 감소가 적은 분야는 수동부품, 접속부품이며, 전자디바이스 중에서는 액정디바이스, 반도체소재임
- 일본의 전자부품 디바이스 분야의 생산에 있어서 특징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주된 생산품목을 보면 ‘억 엔’ 단위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자부품의 대부분은 전자기기뿐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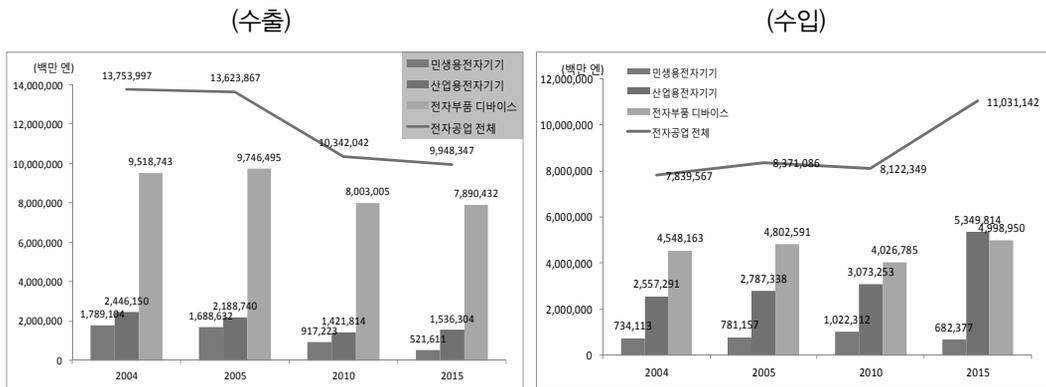
- 일반기기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한 대의 기기에 수백 개의 전자부품이 사용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예를 들어 다층세라믹·콘덴서는 스마트폰 한 대에 수백 개 단위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형경량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임
- 정보전자기술협회가 발표하는 전자부품의 제품별 생산동태를 파악할 있는 통계를 보면 콘덴서는 8,493억 개, 그 중 주력 세라믹 콘덴서는 8,361억 개나 생산하고 있음
- 칩저항기도 연간 천억 개가 넘는 생산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 일본 전자부품 생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단가가 낮은 제품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개당 단가를 보면 1엔에도 미치지 못하는 품목이 있을 정도인데, 저항기, 콘덴서, 인

- 버터는 개당 1일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다층세라믹 콘덴서는 개당 0.40엔, 칩저항기는 0.30엔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음
- 이러한 전자부품의 저가 기조는 시장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수출입동향

- 일본의 전자부품 업체가 해외생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일본 국내에서의 생산이 축소되고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2015년 전자부품 디바이스의 수출 규모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80%규모로 축소된 상황임
- 반면 수입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4〉 일본 전자부품·디바이스 수출입 추이



자료: JEITA 홈페이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

- 수출은 전자부품은 물론 전자디바이스도 함께 감소하고 있으나 접속부품은 1.4배, 수동부품은 1.1배 증가하는 등 세부항목에서 있

- 어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수입 역시 집적회로는 감소하는 추세이

지만 반도체소자는 약 5배 증가하는 등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 JEITA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자부품업체의 출하지역을 조사해서 글로벌 출하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 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일본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주요 일본의 전자부품업체의 판매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음

〈표8〉 일본 전자부품·디바이스의 수입액 추이

품목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민생용전자기기	734,113	781,157	1,022,312	700,740
산업용전자기기	2,557,291	2,787,338	3,073,253	5,402,730
전자부품·디바이스	4,548,163	4,802,591	4,026,785	4,767,574
전자부품	610,132	658,263	467,621	619,022
수동부품	134,584	139,852	114,867	148,477
접속부품(전자회로기관 제외)	94,229	98,873	103,546	134,327
전자회로기관	139,311	141,999	112,886	141,669
변환부품	117,467	122,564	105,048	129,709
기타 전자부품	124,541	154,974	31,273	64,841
전자디바이스	2,195,927	2,268,133	2,058,692	2,796,810
전자관	15,226	13,716	8,526	15,297
반도체소자	204,121	220,211	276,942	1,016,903
집적회로	1,976,580	2,034,206	1,773,225	1,764,610
기기부분품	1,742,104	1,876,195	1,500,472	1,351,742
전자공업 합계	7,839,567	8,371,086	8,122,349	10,871,045

자료: JEITA 홈페이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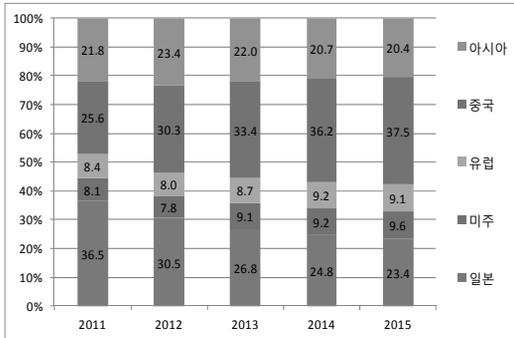
- 일본 전자부품은 2012년 이후 출하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전체 출하액은 39조 3,720억 엔임
 - 일본 국내 및 해외에서 일본기업이 출하한 전자부품 중에는 ‘수동부품’이 전체의 3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접속부품(27.6%)’, ‘변환부품(17.4%)’로 나타남
- 출하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 내수용으로

출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 중국에 밀려 2위로 내려앉은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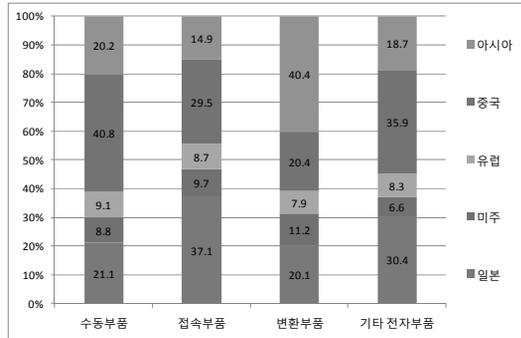
- 전체 출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가장 많으며 2015년 실적 기준으로 전체 출하량의 37.5%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 중국과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3개 지역으로의 출하가 전체의 80%를 넘고 있으며, ‘미주’ 및 ‘유럽’ 지역으로의 출하 비중은 20% 미만에 머물러 있음

〈그림5〉 일본 전자부품·디바이스 지역별 수출 비중 추이

(전자부품 전체)



(전자부품 세부 제품별, 2013년 실적 기준)



자료: JEITA 홈페이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

□ 아시아 지역에는 통계 편의상 중남미지역 중동·아프리카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지역으로의 출하량은 미비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아시아 지역으로 출하량은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추측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일본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출하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부품은 ‘접속부품’임

○ 단 접속부품의 중국으로 출하량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2011년 당시 49.8%에서 2013년 37.1%로 낮아졌음

○ 출하액이 가장 큰 ‘수동부품’의 40.8%가 중국 시장으로 출하되는 것임

□ 이전에 일본 국내 출하가 최대 규모였던 것이 다른 지역이 최대가 된 것으로는 ‘기타 전자부품’이 있음

○ 2011년 35.1%에서 2013년에 30.4%로 낮아졌으며, ‘중국’으로의 출하 규모가 가장 커졌음

○ ‘변환부품’은 일본 국내 출하가 2011년 39.5%에서 2013년에 20.1%로 낮아졌고, 아시아 지역이 최대 규모가 되었음

□ 전자부품의 수요는 일렉트로닉스 분야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2014년 실적 기준으로 전자부품의 수요 분야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통신기기’용이 약 38%로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 이어서 ‘자동차’용이 약 23%, PC·주변기기가 약 11%로 그 뒤를 잇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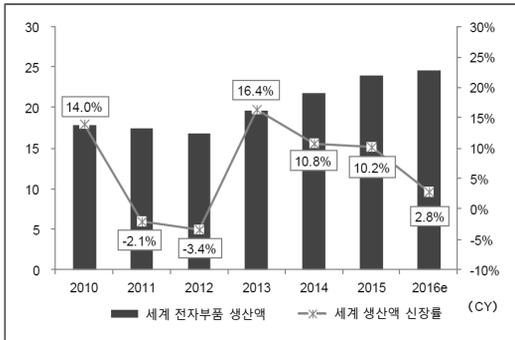
○ 가전용과 산업기기 및 오락용은 약 3%, 의료·헬스케어용과 에너지용이 약 1%, 기타 분야가 약 10%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3) 일본 전자부품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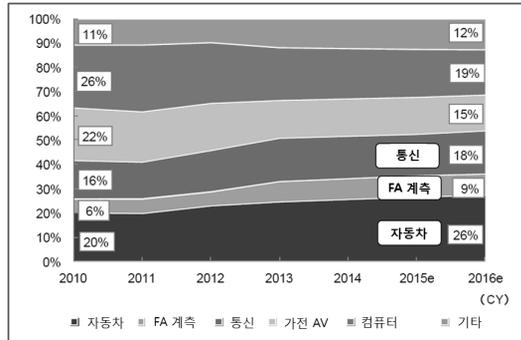
□ 한편 2016년 세계 전자부품시장은 24.6조 엔(전년대비 +2.8%)으로 성장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스마트폰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주요 전자기기의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임

〈그림6〉 세계 전자부품 시장 예측(생산금액)



〈그림7〉 커넥터 용도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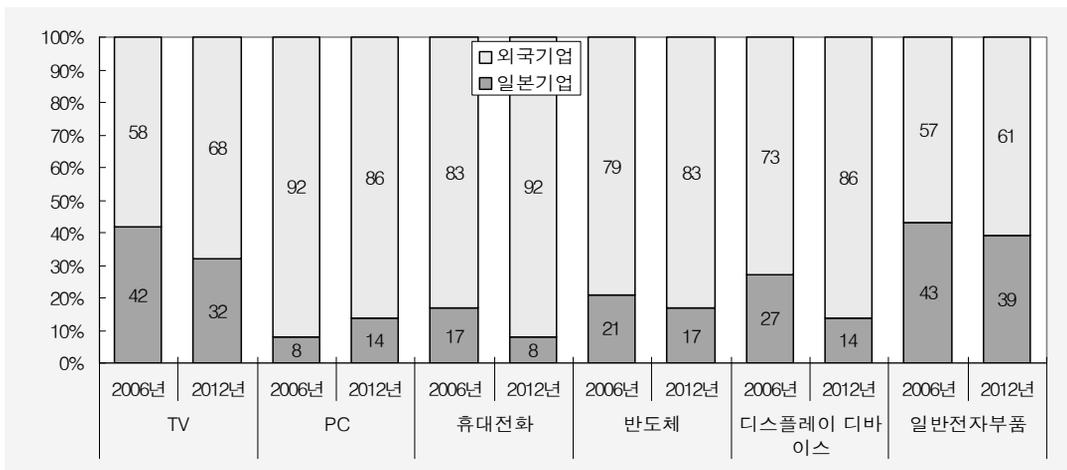


자료: 미즈호은행 산업조사부(2016), '주요산업의 수급동향과 단기전망'에서 인용

- 앞으로 자동차의 대수 증가와 전동화 및 전장화에 따른 인수 증가, 산업기기의 고기능화 및 다기능화, 사물인터넷(IoT)의 보급에 따른 인터넷 연계 기기 증가 등으로 전자부품의 수요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커넥터의 용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FA·계측의 비중 상승이 전망되며,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앞서 언급한 전자부품 전개가 예상됨

- 일반전자부품 분야에서 일본기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휴대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일본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0~20%이하까지 낮아졌음
- 그러나 일반전자부품도 약간 줄어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 40%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그림8〉 주요 전자기기 및 전자부품의 일본기업 세계시장 점유율



자료: 日本政策投資銀行, '日本の電子部品産業の強みと競争力強化に向けた方策'(2014년9월17일)에서 인용

3. 일본의 수입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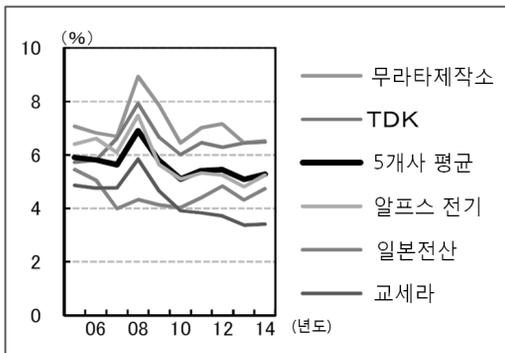
1) 주요 기업동향

- 최종제품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의 전자전기기업이지만 전자부품은 높은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음
 - 2015년 일본의 전자부품 생산액은 8.4조 엔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전망됨
 - 2014년도는 무라타제작소, 일본전산, TDK 등 3대 기업의 매출액이 처음으로 1조 엔을 돌파했음
- 이렇듯 일본 전자부품 업계의 호조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산업의 성장 덕분임
 - 스마트폰은 미국 애플의 아이폰6이 기록적인 판매대수를 달성했고, 중국 시장에서는 샤오미 등의 현지 저가폰의 약진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스마트폰의 이러한 시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 등이 전자부품의 수요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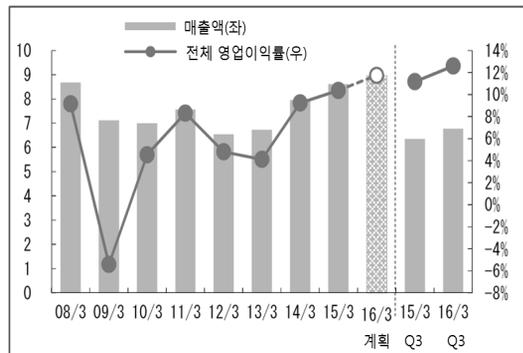
-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의 고급화가 진행되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음
 - 무라타제작소는 LTE회선의 보급으로 대응부품 수요가 증가했고, 알프스전기도 카메라의 흔들림 방지 기능을 실현하는 부품의 판매수량이 급증했음
 - 고부가가치의 전자부품 출하가 증가하면서 수익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자동차분야에서는 모터업체의 실적에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음
 - 일본전산은 자동차 조타분야에 모터를 응용하는 기술을 실용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음
 - 자동차업체의 생산대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도 일본 전자부품 업체의 실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음

〈그림9〉 전자부품 5대 일본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추이



자료: 日本政策投資銀行, ‘日本の電子部品産業の強みと競争力強化に向けた方策’(2014년9월17일)에서 인용

〈그림10〉 주요 상장전자부품 및 반도체기업 상위 17개사의 합산 실적 추이



자료: 스미토모미즈이은행 산업아웃룩(2016년 4~6월), ‘전자부품·반도체’에서 인용

〈표9〉 일본 전자부품 주요 업체 실적 및 특징

분야	업체명	매출액 (억 엔)	영업이익 (억 엔)	강점 및 주요 특징
종합 전자	무라타제작소	10,435	2,145	세라믹 재료부터 일관 제조에 강점. 적층세라믹 콘덴서와 더불어 표면파필터, 세라믹발진자 등의 분야에서 세계 1위 시장점유율.
	롭	3,627	388	커스텀LSI에 강점. 다이오드 등 반도체소재와 저항기 분야도 강함. LED, 센서 등 성장분야에 중점.
	교세라	15,265	934	업계 최대 기업. 파인세라믹기술을 응용한 반도체 부품 및 세라믹 콘덴서 등 다각도 전개. 반도체용 세라믹 패키지는 세계 1위. 독자적인 '아메바 경영'에 특징
	오무론	8,472	865	감지·제어기술이 중심. 제어기기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 릴레 등의 전자부품을 자동차용으로 전개. 독창적 개발력에 정평.
	태양수전	2,270	131	세라믹 콘덴서 세계 4위. 인버터, 표면파필터도 강함
	미츠미전기	1,530	9.5	전원부품과 고주파 디바이스 등 다각도 경영. 닌텐도 게임기의 기구부품 생산
	알프스전기	7,486	535	금형의 정밀가공기술에 강점. 스마트폰 부품과 정보통신 분야에 진출. 센서 분야 강화 중. 매출의 약60%가 자동차용. 자회사에 내비게이션 등의 알파인이 있음.
	TDK	10,825	724	HDD용 자기헤드에서 세계 1위. 세라믹콘덴서는 세계 3위. 자성재료 페라이트가 핵심기술
	키엔스	3,340	1,757	FA센서 등 검출 계측제어기기를 중심으로 전개. 고수익 체질
	신광전기공업	1,428	45	IC패키지, 리드프레임 분야 강점. 후지쯔의 계열사. 인텔에 제품 공급
코일	이비덴	3,180	260	IC패키지 주축. 인텔에 제품 공급. 스마트폰용 제품 확대 중.
	스미다 코포레이션	775	33	코일 전문회사. 정보통신기기용에서 자동차용까지 사업 전개. M&A에 적극적
외국 기업	동광	335	27	대규모 코일 기업. 메탈알로이 제품에 강점. 전원·무선통신에 강함
	SEMCO(한국) YAGEO(대만)	7,143 1,081	1.7 161	삼성 계열기업. 종합전자부품 업체. 세라믹 콘덴서 분야 세계 2위 아이폰용 저항기에서 급성장. 세라믹 콘덴서 분야에서 일본기업 추격. 인버터 등의 분야에서도 사업 전개
모터	마브치모터	1,225	168	소형브러시모터에서 세계 시장 50% 장악. 차량용 강화 중. 중국 및 베트남을 중심으로 전량 해외생산 중.
	일본전산	10,283	1,112	정밀소형모터에 강점.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의 HDD용 모터의 수요 감소로 차량용 및 산업용 등의 중대형 제품으로 생산의 축을 이전 중. 기업인수에도 적극적
콘덴서	니치콘	1,072	38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가 주력제품. 축전시스템 등을 육성하는 중. 2012년 교세라그룹에 탄탈(tantal)분야 양도
	일본케미콘	1,233	51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1위. 알루미늄전해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고분자분해를 중점 육성
커넥터	일본항공전자공업	1,911	258	NEC계열. 소형, 박형, 고속전송에 강점. 스마트폰용 커넥터로 급성장
	히로세전기	1,257	325	개발 및 영업특화형의 무공장 제조가 기본. 높은 수익률 유지. 세계 주요 휴대전화업체와 거래.
	호시텐	1,482	▲28	커넥터, 스위치, 마이크 등의 정보통신부품에 강점. 전자기기 조립도 함. 닌텐도 납품이 전체 출하의 50%.
	혼다통신공업	166	14	커넥터 전문 회사. 주로 통신용 제조 차량용 육성 중. 파나소닉과 제휴
	SMK	662	21	커넥터 등 접속부품 강점. 스마트폰용이 주류. 차량터치패널도 전개
액정 디바이스	일본전파공업	477	1.7	세이코엡스에 이은 업계2위. 휴대기지구, 자동차용에 강점
	대진공	310	22	액정 디바이스 대규모 사업전개. 민생용 진동자 등에서 시장점유율 1위

자료: 동양경제신보사(2016), '会社四季報 2016年版 業界地図'에서 작성

- 앞으로 안전운전을 위한 보조시스템의 보급이 보다 더 확산되면 통신관련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업체들 간의 개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됨
 -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이 고도화되면 될 수록 전자부품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의 전자부품 업체들의 실적 호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4. 시장 전망 및 수출 전망

- 일본 전자부품업체의 매출은 2015년 12월 이후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음
 - 전자부품시장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폰용에서는 단말기의 고성능화에 따른 대당 부품탑재개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출하대수는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 전자부품의 시장규모(일본 전자부품업체의 매출)는 2015년 12월 이후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음
 - 앞으로는 자동차의 보다 적극적인 전장화 진전과 IoT의 보급으로 전자부품의 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전반적인 수요가 신흥국으로 옮겨가고 있고 최종제품업체 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가격인하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환율 변동 여부에 따라서는 전자부품 업체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 전자부품업체의 자동차관련 사업은 이전에는 오디오와 네비게이션 등이 중심으로 민생용 기술을 자동차에 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서는 전지와 모터, 인버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특히 자동차의 파워트레인 계열과 관련된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고온·고전압·대전류에 대응할 수 있는 콘덴서와 커패시터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또한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서는 자동제어장치 등 선진운전지원시스템(ADAS)에 필요한 화상처리와 통신용 부품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전자부품업체에게 이 같은 자동차관련 사업 확대는 또 다른 사업 확장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선진국의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반면 중국계 업체의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상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임
 - 특히 신흥국의 단말기제조업체는 가격만이 아니라 설계개발의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전자부품업체는 단가뿐 아니라 주변기기와 조합한 모듈제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영업활동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증원해서 현지 고객을 지원하는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 전자부품업체로는 대만의 **MediaTak**와 미국 켈컴 등 스마트폰용 핵심 반도체의 팹리스 기업이 책정하는 레퍼런스 디자인의 추천 부품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중국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애플과 동등한 고성능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제조업체의 부품으로 채택된 실적을 알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해외 현지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을 활용하는 것도 판로개척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
- 일본 전자산업이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전자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일본의 전자부품업체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 및 의료 관련 시장으로 신속하게 사업의 중심축을 이동시키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성장분야는 고도의 신뢰성과 내구성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능력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과

는 다른 파격적 변신을 감안한 새로운 전략 모색이 절실함

- 결국 사회 변화는 물론 기술 트렌드를 간파해서 전자부품의 기능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가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당장의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선행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장 확대 전략도 병행되어야 함

<참고자료>

- 1) 동양경제신보사(2016), ‘会社四季報 2016年版 業界地図’
- 2) 日本政策投資銀行, ‘日本の電子部品産業の強みと競争力強化に向けた方策’(2014년9월 17일)
- 3) 스미토모미즈이은행 산업아웃룩(2016년 4~6월), ‘전자부품·반도체’
- 4) 미즈호은행 산업조사부(2016), ‘주요산업의 수급동향과 단기전망’
- 5)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홈페이지
- 6)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동차부품 시장

〈포인트〉

-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對日수출은 2014년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2015년에 다시 전년대비 무역적자로 돌아섬
- 전반적으로 자동차부품의 對세계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특히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 일본의 완성차업체가 한국산 자동차부품을 신뢰하고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제한된 영역에 대한 평가임
- 한국 자동차부품업계는 상대적으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전장부품과 반도체부품은 물론, 차세대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분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1. 한국의 수출동향

1) 수출동향

- 2015년 말 현재 한국 자동차회사(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대우버스, 타타대

우)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1차 협력업체 수는 전년대비 0.5% 증가한 883개사임

- 이 중 대기업이 241개사(27.3%), 중소기업이 642개사(72.7%)이며, 부품업체의 외형 증가 등으로 대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표1〉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규모별 업체수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계	증감률
2010	119	780	899	-1.3
2011	149	737	886	-1.4
2012	205	682	887	0.1
2013	229	669	898	1.2
2014	231	648	879	-2.1
2015	241	642	883	0.5

〈표2〉 한국 자동차부품 매출액 추이

연도	매출실적(억 원)				증감률
	OEM	A/S	수출	합계	
2011	546,293	30,978	130,912	678,183	15.2
2012	519,732	30,184	199,443	750,359	10.6
2013	507,352	30,441	210,510	748,303	-0.3
2014	519,993	31,200	215,857	767,050	2.5
2015	484,810	33,937	219,645	738,392	-3.7

주: 1. 중소기업 기준: 3개년도 평균매출액 1,000억 원 이하(2015.1.1.부터 적용)
 중소기업 제외 기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경우 등
 2. 2015년 대기업 241개사 중 214개사는 중견기업에 해당(2012년 180개사, 2013년 200개사, 2014년 204개)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홈페이지에서 작성

- 최근 5년 동안의 한국 자동차부품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1년과 2012년 전년대비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후 2013년에 -0.3%로 성장세가 반전되었음

○ 그 후 2014년 다시 증가한 매출액이 2015년에 2013년보다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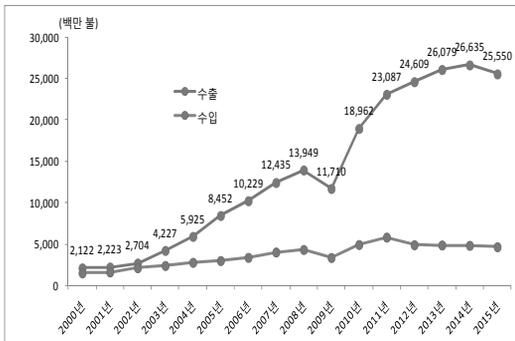
- 한편 2015년 국내 자동차부품(MTI 742기

- 준) 對세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4.1% 감소한 255억 5,259 달러를 기록함
- 2009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출실적이 2015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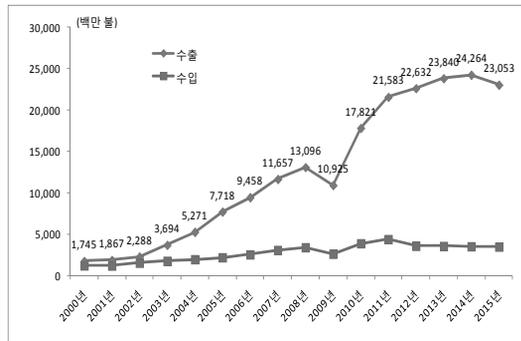
-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음
- 2008년~2014년 동안 수출 실적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자동차부품 수출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음

〈그림1〉 한국의 對세계 자동차부품 수출 추이

MTI 742(자동차부품)



HSK 8708(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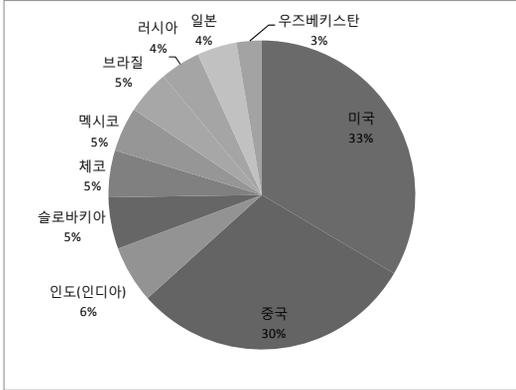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서 작성

- 1988년에 한국정부가 무역동향 분석을 위해 제정한 산업별·품목별 수출입 분류체계인 MTI기준이 아닌 국제표준으로 분류하는 HS 코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의 수출 실적을 보더라도 2015년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HSK 8708)의 2015년 수출 실적은 약 230억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MTI 742 기준으로 2015년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실적 255억 5,259 달러 중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30%이며, 한국계 완성차 업체 공장이 있는 인도로의 부품수출이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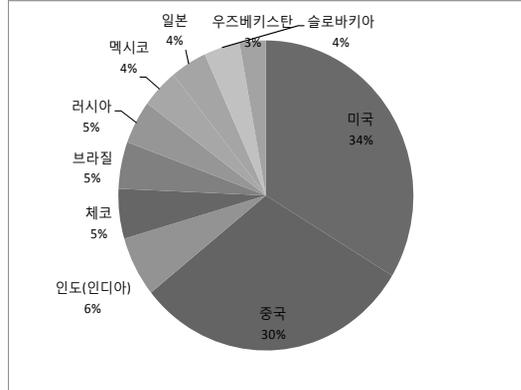
-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HS코드로 기준을 바꿔보더라도 국가별 수출 비중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일본으로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서 2014년에는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음
- MTI 742 기준으로는 2014년에 수출입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HSK 8708 기준으로는 2013년에 수출입이 역전되었고 2014년에는 그 역전 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음
- 그러나 한국의 對日 자동차부품 수출입은 2015년에 다시 무역역조 현상으로 돌아섰음

〈그림2〉 한국의 자동차부품 국가별 수출 비중(2015년 실적 기준)

MTI 742(자동차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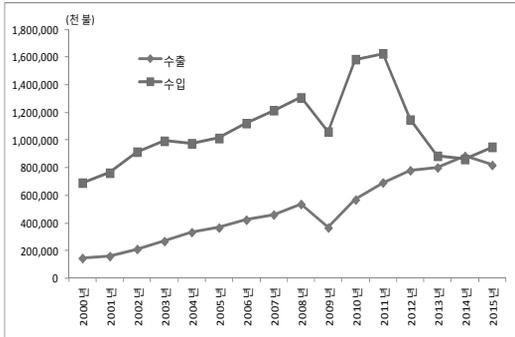
HSK 8708(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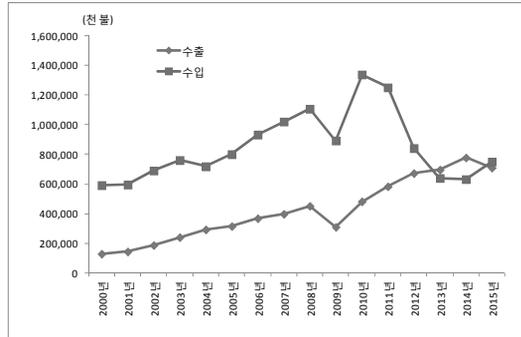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서 작성

〈그림3〉 한국의 對日 자동차부품 수출 추이

MTI 742(자동차부품)



HSK 8708(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서 작성

2) 증감요인 분석

- 한국의 對세계 자동차부품 수출은 물론 對日 자동차부품 수출 역시 2015년에 감소세로 돌아섰음
- 2016년 상반기에도 자동차부품 수출은 현대기아차 해외생산 증가, 멕시코 기아 공장 해외생산 개시에도 불구하고 부품

현지 조달 확대, 중국 및 신흥시장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6.1% 감소한 120.9억 달러를 기록했음

- 이러한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는 한국계 완성차 해외 생산, 판매 감소로 현지 완성차 공장으로서의 부품 수출이 감소한 것과 무관하지 않음

〈표3〉 한국의 對日 자동차부품 무역흑자 전환 요인

對日 자동차부품 수입량 감소 요인	對日 자동차부품 수출량 증가 요인
▷ 2011년 3월의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서플라이체인 단절을 계기로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일본계 부품조달의 리스크 분산을 도모하기 위해 부품조달을 자국생산으로 대체하려고 했을 것으로 생각함 ▷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음 (1) 2000년대 들어와 한국의 완성차 및 부품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했음 (2) 한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한계(생산규모의 한계와 노조 시위 문제)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한국 완성차 기업의 해외진출이 시작되었음. 이로 인해 국내 부품수요는 감소했음 (3) 그러나 한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통계에서는 부품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지 않음 (4) 해외수출량도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의 일본산 부품 수요의 평균적인 감소는 불가피함	▷ 최근 국산 자동차 부품의 기술력발전과 코스트 퍼포먼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한국부품의 수출량이 급증했음 ▷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장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일본의 완성차 업체 및 1차 공급업체에 의한 글로벌 부품 조달이 증가함 ▷ 그 배경에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기업(가령 만도, 현대 모비스 등)의 일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있었음 ▷ 즉 2000년경부터 시작된 한국 자동차산업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자동차 부품 산업도 발전했고 그 자립도는 일본보다 높음 ▷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의 한국산 부품 공급량이 증가했음

자료: 공익재단법인 아시아성장연구소(2015), '일한자동차부품물류의 동향변화에 관한 조사연구(조사보고서 14-07)'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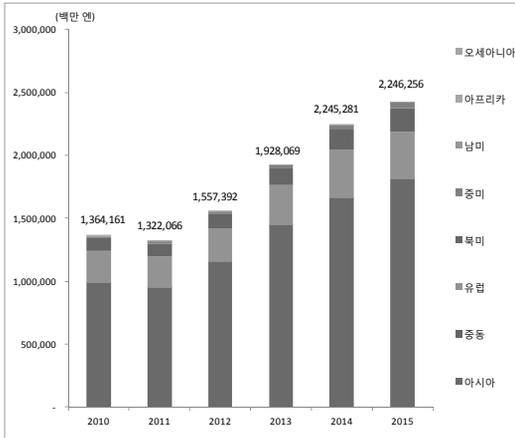
- 또한 지난 2014년에 자동차부품이 對日 흑자를 기록한 요인으로는 (1)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수입한 분량이 감소한 이유와 (2)對日로 자동차부품을 수출한 분량이 증가한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일본으로부터의 자동차부품이 감소한 이유로는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한국 완성차업체의 해외생산 증가로 인한 국내 자동차부품 수요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일본 시장 진출이 증가한 이유로는 한국 자동차부품업체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더불어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일본 완성차 업체가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임

2. 일본의 對세계 수입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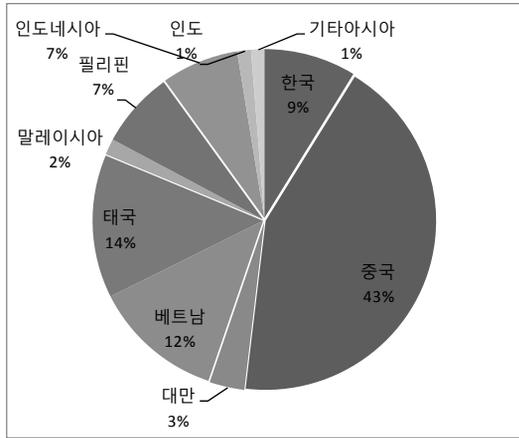
- 일본의 자동차부품 수입 금액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실적 기준으로 자동차부품 수입액은 2조 2465억 엔이며, 이중 약 1조 8000억 엔 정도가 아시아지역에서의 수입이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이 아시아지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부품을 국가별로 세분화해보면 전체의 43%가 중국이며, 다음으로 태국(14%), 베트남(12%)임
- 이들 상위 지역은 일본 자동차부품업체가 현지공장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해외 현지에서 생산한 자동차부품으로 다시 일본으로 역수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임

〈그림4〉 일본의 자동차부품 수입

수입국별 금액 추이



아시아지역 수입국별 비중



자료: 日本自動車部品工業会, '2015년 수출입통계'에서 작성

- 아시아지역에서의 자동차부품 수입 중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약 9%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부품은 중국과 베트남, 태국과는 달리 한국의 자동차부품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수입되는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부품이라기 보다는 모듈화된 범용제품이 많다는 특징이 있음
- 일부 전장부품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자동차부품업체가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본 등의 국제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일본에서의 한국 자동차부품 경쟁력 및 거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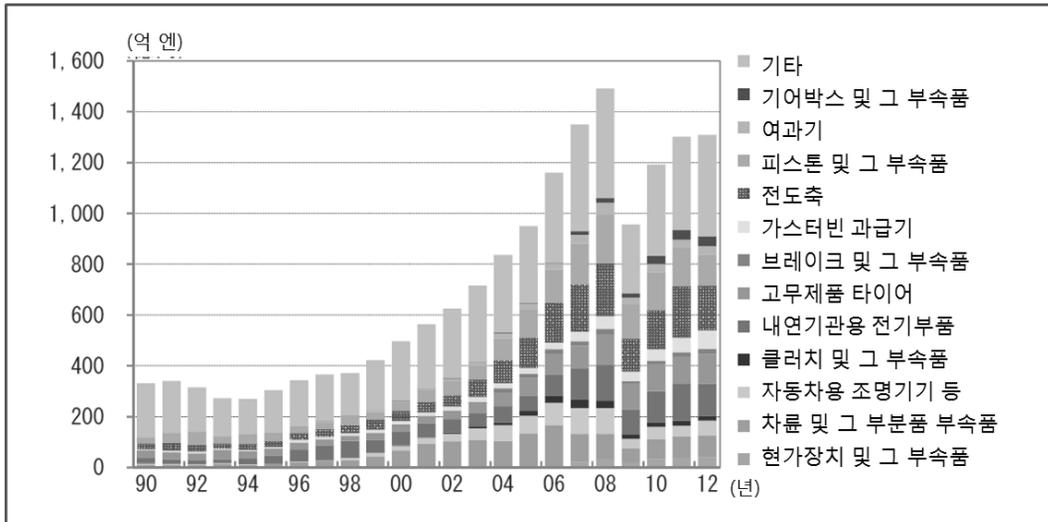
- 일본정책투자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일 간 자동차부품 경쟁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자동차부품 중에서 '자동차용조명기기', '차륜 및 부속품', '내연기관용 전기용품', '현가장치 및 부품', '클러치 및 부품'은 이 전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수출경쟁력(무역특화지수를 근거)이 우위에 있었음
- 또한 최근 한일 간에 경쟁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부품 분야는 '브레이크 및 부품', '타이어' 등임
- 상기 2개의 자동차부품은 자동차의 중요한 요소인 안전과 관련되는 부품인데, 최근 한일 간 수출경쟁력이 역전되었음
- 최근 국산 타이어가 일본에서 신차에 표준 장착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본자동차용품점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전도축(傳導軸)', '가스터빈 과급기'도 한국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
- 한편 '피스톤 및 부품', '여과기' 등은 한

- 국에 비해 일본이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종래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기어박스 및 부품’도 최근

- 몇 년 사이 한국이 수출을 강화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엔진 및 구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5〉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별 자동차부품 수입액 추이



자료: 日本政策投資銀行産業調査部, ‘自動車産業における韓国部品サプライヤーの変化’, 今月のトピックNo. 187-9(2013.2.19.)에서 인용

〈표4〉 한국 자동차부품 업체의 최근 일본과의 거래 실적

	거래 일본 기업	공급 제품	금액
현대모비스	미쓰비시	LED헤드램프	2억 달러
	후지중공업	리어램프	3,300만 달러
만도	닛산자동차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등	410억 원
S&T대우	다이하츠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	-
한라공조	마츠다	에어컨부품	3,800억 원

자료: 日本政策投資銀行産業調査部, ‘自動車産業における韓国部品サプライヤーの変化’, 今月のトピックNo. 187-9(2013.2.19.)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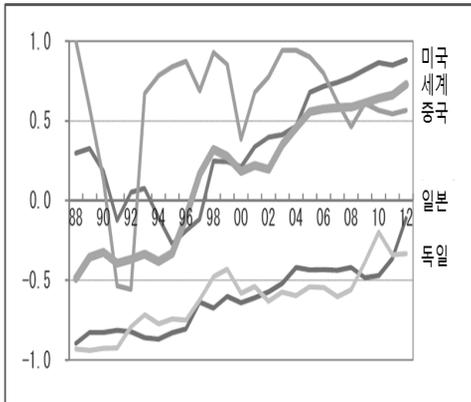
-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부품에는 한국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렇다 하더라도 규슈(九州)의 닛산자동차가 부품의 약 90%를 규슈 주변 지역과 한국 및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조달할 방침을 표명하는 등 일본 완성차 업체

- 가 가격경쟁력이 있는 한국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거래를 확대하고 있음
- 브랜드파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 본체와는 달리 자동차부품의 상당 부분은 품질과 비용을 만족하면 거래는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현대자동차의 생산거점이 있는 나라는 물론 현대자동차의 거점이 없는 일본, 우즈베키스탄, 슬로베니아, 멕시코, 태국, UAE, 독일 등도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그 중에서도 특히 모국의 자동차부품업체가 강한 일본과 독일에 대해 수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음(무역특화지수 참조)
-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자동차부품업체와 합작회사가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만도가 GM에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완성차업체로부터의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수출과 더불어 해외 현지에서 생산해서 직접 외국기업에 공급하는 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6〉 한국의 자동차부품 무역특화지수 〈표5〉 최근 구미 완성차업체의 한국 자동차부품 구매 동향



	거래회사	거래품목	금액(불)
현대모비스	클라이슬러	프론트리어샤시모듈	20억
	GM	라디오 공조장치의 제어 스위치	10억 7,000만
	클라이슬러	LED의 리어램프	
만도	다임러	상용밴에 탑재되는 오디오, 지능형 배터리 센서	1억 3,000만
	GM	브레이크캐리퍼, 전동파워 스티어링(EPS)	5억 2,000만
	PSA	브레이크	1억 달러
	VW	브레이크캐리퍼	약 2,100억 원

자료: 日本政策投資銀行産業調査部, ‘自動車産業における韓国部品サプライヤーの変化’, 今月のトピックNo. 187-9(2013.2.19.)에서 인용

- 또한 한국에서는 일본과 비교해서 기술력을 갖춘 2차 공급업체가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스위치·금형 등의 범용품에 대해서는 한국의 하위 공급업체 제품도 품질의 안정성에 있어서 구미 완성차 업체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어 하위 공급업체에 의한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일본의 수입시장 상황

1) 업계동향

- 최근 일본의 자동차부품 업체의 실적을 살펴보면, 호전되고 있는 기업과 난관에 봉착한 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

- 일본 국내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고 완성차 수출도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축소되었음
- 해외시장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의 판매는 여전히 좋지 않지만 북미시장에서의 일본차 판매는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중국시장에서도 판매증가세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증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전반적으로는 해외 판매용의 국내 납입분량도 포함해서 해외수요가 전체시장을 견인해가고 있어 자동차부품 시장은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단 최근 자동차부품업체가 시장 확대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많은 일본의 자동차부품업체가 해외에서의 새로운 공장 건설과 증산투자를 하고 있고, 생산준비 비용과 감가상각비 증가 등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임
- 원재료 가격과 전력요금 등이 상승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노무비도 증가 추세에 있어 전체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이익은 감소하는 기업도 적지 않음
- 특히 큰 폭으로 생산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혼다자동차 계열의 많은 자동차부품업체가 수익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 동남아시아의 회복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2015년 이후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의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다만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비용관리를 할 수 있을지가 가장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앞으로 자동차부품업체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품질에 대한 대응능력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자동차업계를 대표했던 다카다스에 에어백의 결함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했었음
- 리콜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전반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었음
- 한편 자동운전과 자동차의 설계표준화 등이 급부상하면서 자동차부품 업계의 재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임
- 글로벌 시장에서는 보쉬와 콘티넨털, ZF 등 특히 독일의 대규모 자동차부품업체는 M&A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 국내에서는 특히 도요타계열 그룹에서 사업집약이 진행되고 있음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자동차부품 관련 서플라이체인 기능의 마비를 경험한 일본은 부품조달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서플라이체인 구도에서 리스크분산을 피하기 위한 부품조달 방법으로 글로벌 부품조달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일본 완성차업체가 닛산자동차큐슈임
- 닛산자동차큐슈의 한국 자동차부품 조달은 한일 정기왕복 선박인 부관페리(부산항-시모노세키항)와 부산-하카타 선박을 이용해

서 한국 각지의 부품공급제조공장을 순회한 사시가 그대로 일본의 조립공장에 부품을 수송해서 곧바로 생산라인에 부품을 투입하는 획기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닛산자동차큐슈가 한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이유는 한국산 부품의 품질이 양호하고 저렴할 뿐 아니라 토털물류비용 삭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임
- 닛산자동차가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주요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조달방식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었음
- 닛산자동차큐슈의 이 같은 부품조달은 물류 단계별의 입출고 수속이 생략되기 때문에 부품조달비용이 20% 삭감될 뿐 아니라 리드타임의 획기적인 단축(25일→3일)이 가능함
- 또한 자동차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닛산자동차 큐슈공장의 경우, 일본 국내의 부품협력업체와의 수송거리를 생각하더라도 한국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부산과 후쿠오카는 약200km)
- 2011년 한일간에 구축된 이러한 자동차 부품 공급시스템은 매년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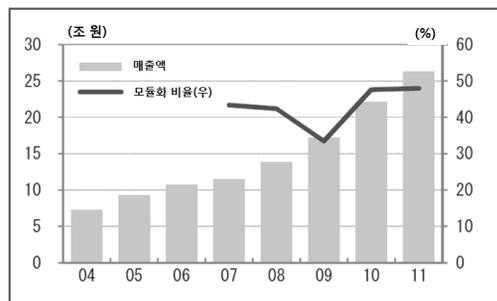
2) 한국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쟁력

- 한국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쟁력 중 하나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코스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한국의 완성차업체는 협력업체에게 비용절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의 자동차부품업체는 자국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절감 요구에 대응할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업 간 거래는 자동차부품업체의 코스트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음

- 한편 한국 자동차부품업체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최근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품질임
- 1980년대 북미시장에서 발생했던 품질문제가 발단이 되어 1990년대 말 이후 현대자동차이 추진한 품질책임경영은 그 이후 자동차의 품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자동차품질 향상을 위해 한국 국내의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품질요구수준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1998년 이후 자동차부품업체의 도산과 집약으로 업계재편이 이루어졌고, 모듈화에 따른 1차 공급업체의 집약이 진행되면서 품질이 향상되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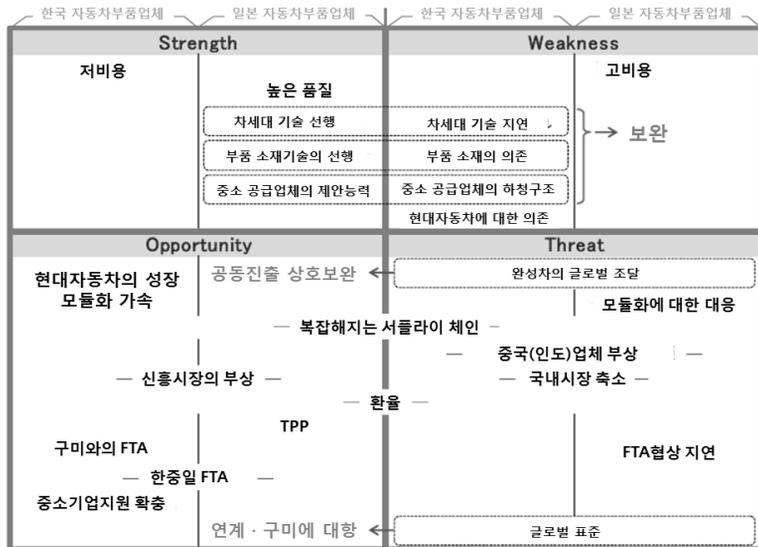
〈그림7〉 현대모비스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모듈화 비율 추이



자료: 日本政策投資銀行産業調査部, ‘自動車産業における韓国部品サプライヤーの変化’, 今月のトピック No. 187-9(2013.2.19.)에서 인용

- 한국에 진출한 해외 완성차업체가 한국의 자동차부품업체 제품을 이용하게 되었고, 보쉬와 델파이 등 외국의 자동차부품업체와의 합작 사례도 증가하면서 기술력이 좋아졌음
- 일례로 브레이크 시스템 분야에서 일부 한국의 자동차부품업체가 완성차 업체를 뛰어넘는 특허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술력이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음
- 최근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듯이 이를 떠받들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부품업체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음
-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부품업체와 일본의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쟁은 점차 글로벌 시장으로 보다 넓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부품의 공통화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모듈화도 점차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제조 그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에게는 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단순한 개선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생산개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또한 현상을 바꿀 제안능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러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주력하는 한편 특히 국내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부품업체는 무역특화지수 등을 고려해서 유망분야에 집중 또는 전환하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8〉 한·일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의 SWOT분석



자료: 日本政策投資銀行産業調査部, ‘自動車産業における韓国部品サプライヤーの変化’, 今月のトピックNo. 187-9(2013.2.19.)에서 인용

- 한편 한일 자동차부품 업체 간의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함
- 앞서 언급한대로 닛산자동차큐슈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물류상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일본의 자동차부품업체가 한국 측을 보완할 후 있는 영역으로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차세대자동차 기술 분야 등임
 - 또한 앞으로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환경, 안전,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규모의 경제 효과로 비용을 절감하거나 차세대 기술표준을 만드는 등의 로열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한일 자동차부품업체 쌍방의 장점 영역을 활용하여 모듈화를 추진하는 보완협업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완성차업체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자동차부품업체간 협업을 통해 그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도 있음
 - 이미 일부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제한된 리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리스크 회피를 기획한 양국 기업이 해외 거점의 상호활용과 공동 진출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급속충전방식(CHAdEMO)와 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한 차체 소프트웨어 공동화 조직(AUTOSAR)과 같은 국제표준을 확립하는 등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이 협력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음

4. 시장 전망 및 수출 전망

- 최근 자동차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전개에 따른 해외생산 확대 및 이에 따른 부품산업의 동반진출과 부품의 현지조달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음
 - 이러한 자동차산업 분야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부품산업도 변모해 가고 있음
- 일반적으로 자동차부품의 수출에는 해외에서 생산하는 자국의 완성차업체에게 공급하는 것과 해외 완성차업체에 대한 공급이 있을 수 있음
 - 2014년에 자동차부품 분야의 무역역조가 개선되는데 기여한 자동차부품의 對日 수출 증가는 해외 완성차업체에 대한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왜냐하면 일본에는 한국의 완성차 업체가 경영하는 공장이 없기 때문임
- 2014년의 對日 수출 증가는 2013년부터 발생했던 엔저 현상으로 한국의 수출환경이 결코 좋지 않았다 점을 감안하더라도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결국 자동차부품의 對日 수출이 증가했던 것은 일본의 완성차 업체가 한국산 자동차부품을 사용하는 장점을 크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임
- 2015년 자동차부품의 對日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기는 했으나, 자동차부품의 생산기술력 향상과 코스트 퍼포먼스로 인해 앞으로도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對日 수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 다만 양국 간 자동차부품의 무역 규모는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對세계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양국 간 무역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음
- 또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부품의 대부분은 ‘차체용 부품’으로 통계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 부품’임
- 일본의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엔진계열 부품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일본의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임
 - 반면 한국산 부품의 수입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강해질 공산이 큼
 - 그러나 신형 자동차에 탑재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전장부품’ ‘반도체 부품’ 등의 분야에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전장부품과 반도체부품과 같은 자동차부품은 무역통계의 정의상, 자동차부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자동차부품 무역통계에는 집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앞으로 한일 자동차부품 무역에는 중국산 자동차부품의 수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의 자동차부품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아직은 한중일 기업 간 기술력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국제 분업화를 통한 자동차산업 분야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3국 간 무역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부품수출입에 있어서는 대폭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과의 부품 무역액이 가장 큼
 - 그 이유로는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제품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에 따른 수출량 증가를 들 수 있음
- 한편 한국의 완성차업체는 필요한 전장부품의 약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금액은 75조원에 달하고 있음(2014년 기준)
 - 그 중에서 약 4%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금액은 3조 원 정도로 나타나 있음
 -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전장부품 등은 무역통계 분류에서 자동차부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즉 적어도 한국의 완성차업체가 수입하고 있는 전장부품의 40%는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입액에 들어가 있지 않음
- 그 밖에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소재와 연료 관련 부품의 대부분을 해외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유형의 수입은 분량은 적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임
 - 즉 전장부품과 차량용 반도체 등의 소재 부품 수입이 한국의 자동차부품 무역액의 통계에서 빠져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대부분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동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경쟁력도 향상되고 있음
 - 특히 한국은 물론 중국의 자동차부품산

- 업의 눈부신 성장에 따라 일본의 자동차 관련 기업에 의한 글로벌 부품조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부가가치가 낮은 모듈화된 범용부품임
- 이들 부품 분야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의 가격경쟁력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임
 - 앞으로 점차 중국산부품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 부품에 대한 일본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은 지속해서 낮아질 것임

<참고자료>

- 1)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홈페이지
- 2)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3) 공익재단법인 아시아성장연구소(2015), ‘일한자동차부품물류의 동향변화에 관한 조사연구(조사보고서 14-07)’
- 4) 日本自動車部品工業会, ‘2015년 수출입통계’
- 5) 日本政策投資銀行産業調査部, ‘自動車産業における韓国部品サプライヤーの変化’, 今月のトピックNo. 187-9(2013.2.19.)

화장품 시장

〈포인트〉

- 한국 화장품의 對日 수출이 한류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한일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음
- 한국의 對세계 화장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중화권으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 일본 시장에서 이미 '한국 화장품' 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형성될 정도로 특정 소비자의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보다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브랜드파워를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임
- 특히 일본의 화장품 산업은 성숙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앞으로 고가 화장품, 남성용 화장품, 오가닉 화장품 등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분야로의 진출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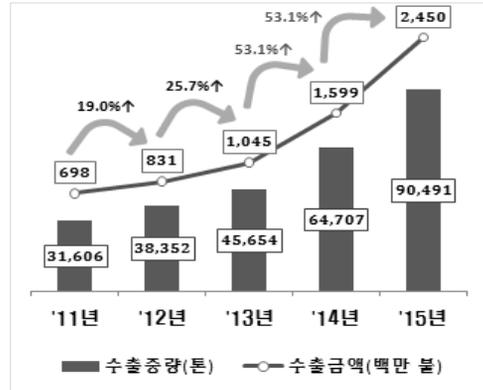
1. 한국의 수출동향

1) 수출동향

- 최근 5년간 한국의 對세계 화장품 수출 규모는 3.5배 증가했음
 - 2015년 화장품 수출은 24억 5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53.1% 증가했으며,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36.9%를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음
 - 한국의 문화콘텐츠의 범세계적 유행에 힘입어 한국산 화장품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브랜드 파워도 강화되고 있음
 - 또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및 중소기업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화장품의 최대 교역국은 여전히 중국이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수출대상국은 2011년 118개국에서 2015년 131개국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임
 - 2016년 들어와서도 화장품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6년 1~3월 수출액은 7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9% 증가했으며, 1월 이후 수출이 회복되어 월별기준으로 보더라도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세계경제 침체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내수기업 육성정책 및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 규정 강화 등이 2016년 잠재적인 수출시장의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림1〉 한국의 對세계 화장품 수출액 추이

구분	수출중량 (톤)	수출금액 (백만 달러)	교역 대상국	최대 교역국
2011년	31,606	698	118	중국
2012년	38,352	831	119	중국
2013년	45,654	1,045	128	중국
2014년	64,707	1,599	130	중국
2015년	90,491	2,450	131	중국
전년대비(%)	39.8	53.1		
연평균 성장률(%)	30.1	36.9		



자료: 관세청 통계에서 인용

-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중에서도 최대 수출 품목은 기초화장용 제품이며, 전체 주요 화장품 수출액의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기초화장용 제품은 최근 5년간 지속해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15년 12억 2,300만

- 달러 수출로 2011년 대비 약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요 화장품 10품목 중 향수를 제외한 9품목의 전년대비 증감이 연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1〉 화장품 품목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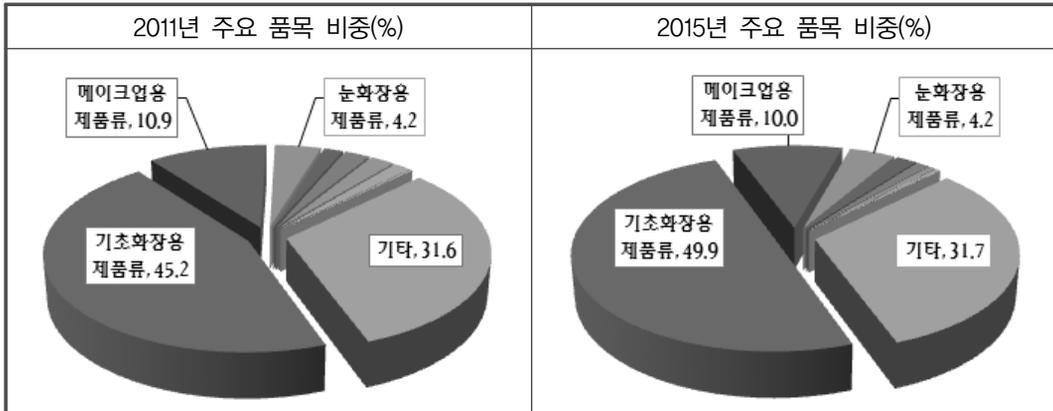
품목명	수출금액(만 달러)					전년대비 (%)	연평균 성장률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요 화장품	69,793	83,085	104,459	159,948	244,958	53.1	36.9
기초화장용	31,538	39,428	51,303	83,173	122,324	47.1	40.3
메이크업용	7,573	9,911	12,064	14,834	24,448	64.8	34.0
눈 화장용	2,940	3,256	5,020	7,470	10,272	37.5	36.7
입술화장용	1,225	1,329	1,994	3,306	4,629	40.0	39.4
파우더	1,622	1,824	1,858	2,367	2,844	20.2	15.1
손발톱용	1,562	1,949	2,123	1,685	1,631	△3.2	1.1
향수	1,119	1,248	538	532	804	51.2	△7.9
화장수	19	18	108	90	217	142.1	84.2
어린이용	111	67	117	109	137	26.3	5.4
기타	22,083	24,054	29,334	46,384	77,651	67.4	36.9

자료: 관세청 통계에서 인용

- 화장품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기초화장용 제품은 주요 화장품 수출의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기초화장용, 기타 화장품, 메이크업용, 눈 화장용 순으로

-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동안 기초화장용 제품은 4.7% 포인트 증가했으나 나머지 제품은 큰 비중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그림2〉 주요 화장품의 수출 비중 변화(2011년→2015년)



자료: 관세청 통계에서 인용

- 전체 화장품 수출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되는 금액은 2015년에 1,900만 달러로 2011년에 비해 무려 5,158배 증가했음
- 주요 화장품 전체 수출액의 0.8%로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지만 연평균 747.5%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력 품목은 기초화장용 제품임
- * 화장품 전자상거래 수출액(천 달러): '11년(4) → '12년(12) → '13년(47) → '14년(2,175) → '15년(19,419)
- * 기초화장용 제품 전자상거래 수출액(천 달러): '11년(2) → '12년(3) → '13년(39) → '14년(1,401) → '15년(10,152)
- 전자상거래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2013년 250달러를 시작으로 2015년 1,256만 달

- 러를 기록함(기초화장용 제품 수출이 49.5%를 차지함)
- 중국의 전자상거래 세계개편(2016년 4월 8일 시행)으로 한국의 화장품 수출의 주력 품목은 세울인하로 수출확대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증감요인 분석

- 중국은 최대 화장품 수출국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 2015년에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은 약 10억 달러(40.6%)로 최근 5년 동안 5.4배 증가했음

- 2011년 수출 상위국은 중국(26.4%), 일본(14.6%), 홍콩(13.0%) 순이었으나, 2015년에는 중국(40.6%), 홍콩(24.8%), 미국(8.5%) 순으로 변화했음

〈표2〉 한국 화장품 수출 상위 5위 국가 변화 추이 [단위 : 만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국가	2012년	국가	2013년	국가	2014년	국가	2015년
1위	중국	18,430(26.4)	중국	19,162(23.1)	중국	26,138(25.0)	중국	51,199(32.0)	중국	99,510(40.6)
2위	일본	10,215(14.6)	일본	14,391(17.3)	홍콩	20,166(19.3)	홍콩	37,692(23.6)	홍콩	60,641(24.8)
3위	홍콩	9,076(13.0)	홍콩	13,376(16.1)	일본	12,328(11.8)	미국	13,019(8.1)	미국	20,735(8.5)
4위	대만	6,092(8.7)	미국	6,141(7.4)	미국	8,590(8.2)	일본	12,042(7.5)	일본	11,369(4.6)
5위	태국	5,231(7.5)	태국	5,883(7.1)	대만	7,970(7.6)	대만	9,867(6.2)	대만	10,671(4.4)

자료: 관세청 통계에서 인용

-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2.4% 증가하며 수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對日 수출은 2011년 전체 화장품 수출의 14.6%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2013년 11.8%(3위), 2015년 4.6%(4위)로 감소했음
- 일본 내 한류가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위축되면서 한국산 제품 특히 화장품 등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의 화장품 세부항목의 지역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기초화장용 제품의 수출은 꾸준히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메이크업용은 기존 홍콩에서 중국으로 대상지역이 옮겨가는 추세이며, 눈 화장용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중국으로의 기초화장용 제품 수출은 8.0배 증가했고, 메이크업용 제품 수출은 5.4배 증가했음
- 또한 미국으로의 눈 화장용 제품의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7.2배 증가했음

〈표3〉 화장품 세부 제품별 지역별 수출 비중 변화 추이

품목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초화장용 제품	중국(18.6%)	중국(20.5%)	중국(24.8%)	중국(30.1%)	중국(38.4%)
	홍콩(16.5%)	홍콩(18.8%)	홍콩(20.7%)	홍콩(26.6%)	홍콩(31.1%)
	대만(13.1%)	일본(16.0%)	일본(12.0%)	일본(8.0%)	미국(5.2%)
메이크업용 제품	홍콩(22.9%)	홍콩(21.9%)	홍콩(25.1%)	홍콩(19.5%)	중국(21.8%)
	일본(16.2%)	일본(21.6%)	일본(15.4%)	중국(17.2%)	미국(20.1%)
	중국(12.9%)	중국(9.6%)	중국(12.5%)	미국(15.6%)	홍콩(14.3%)
눈 화장용 제품	미국(24.6%)	미국(24.2%)	미국(35.9%)	미국(39.6%)	미국(50.6%)
	일본(13.8%)	일본(19.7%)	일본(16.6%)	일본(11.7%)	중국(8.5%)
	프랑스(8.1%)	대만(8.3%)	태국(8.5%)	태국(8.9%)	일본(7.8%)

자료: 관세청 통계에서 인용

- 기초화장용 제품의 對日 수출은 2012년에 16.0%를 차지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음
- 기초화장용 제품뿐 아니라 메이크업용 제품과 눈 화장용 제품 모두 2012년 이후 수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일본으로의 화장품 수출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금액이 줄었다기보다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2. 일본의 對세계 수입시장 동향

- 경제산업성의 생산동태통계에 따르면 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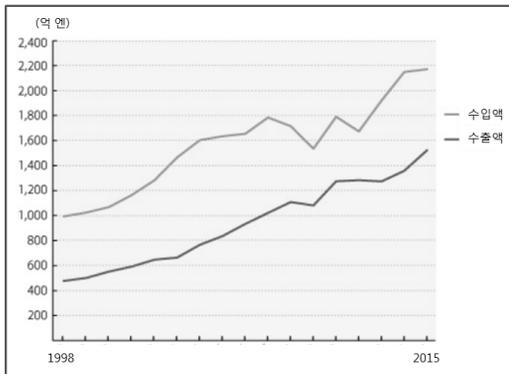
품의 국내공장 출하금액은 2004~2008년까지는 1조 5천 엔 전후였으나, 2008년 리먼 사태로 감소한 이후 4년간은 1조 4천 억 정도를 유지했음

- 그러나 2014년 이후에 다시 소비세증세 영향 등으로 다시 1조 5천억 엔으로 증가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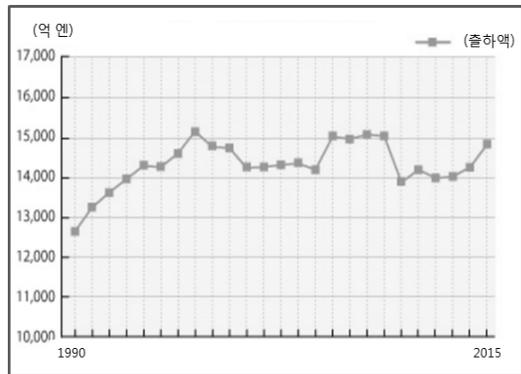
- 한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화장품의 수출입은 모두 장기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08년 리먼 사태로 감소한 이후 2010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수출입 모두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3〉 일본의 화장품 수출입 및 출하액 추이

일본의 화장품 수출입 추이(1998년~2015년)



일본의 화장품 국내 출하액 추이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및 경제산업성 생산동태통계에서 작성

- 일본이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최근에 홍콩,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 중화권 지역으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 금액은 홍콩, 대만, 중국에 이어 4위를 나타내고 있음

- 한국으로의 수출은 최근 3~4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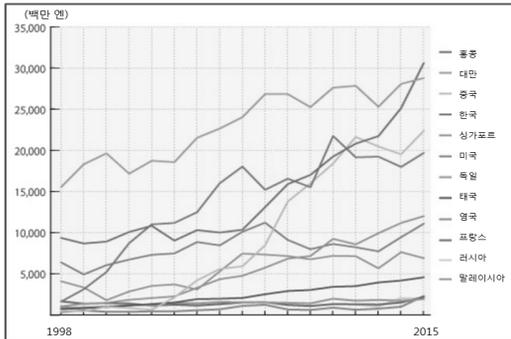
- 일본이 화장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미국이며, 최근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임

- 일본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이며, 미국에서의 수입도 최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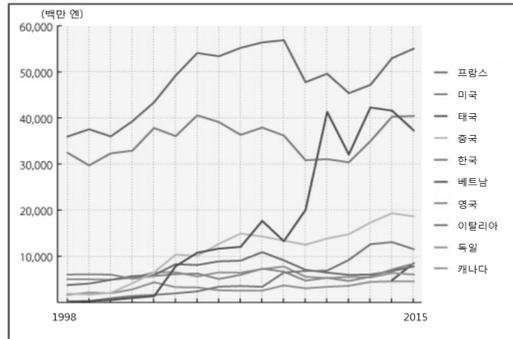
- 한국에서의 화장품 수입은 프랑스, 미국, 태국, 중국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금액을 보이고 있음

〈그림4〉 일본 화장품 수출입 대상국별 실적 추이

일본의 화장품 수출 대상국별 실적 추이



일본의 화장품 수입 대상국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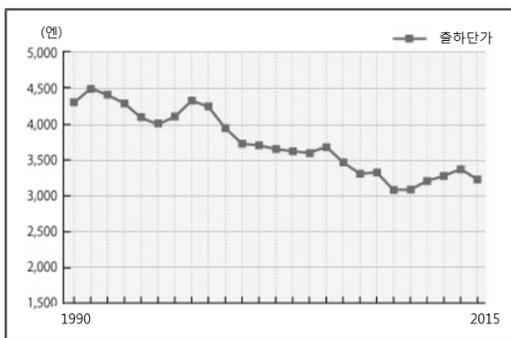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서 작성

- 일본 국내에서의 화장품 출하단가(화장품 1kg당 평균 출하단가) 추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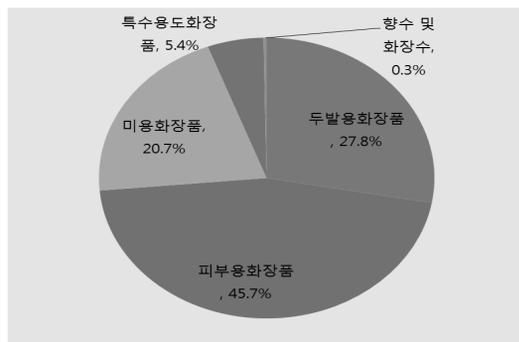
- 1990년대부터 단가가 감소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감소세가 멈추며 다소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림5〉 일본 화장품 국내 출하단가 및 용도별 점유율

일본 화장품 국내 출하단가 추이



일본 화장품 품목별 점유율(2015년 기준)



자료: 경제산업성 생산동태통계에서 작성

- 일본에서 출하되는 화장품을 품목별로 구분해서 앞서 언급한 경제산업성 생산동태통계

- 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피부용화장품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피부용 화장품이 전체의 45.7%, 두피용화장품 27.8%, 미용화장품 20.7%, 특수용도화장품 5.4%로 나타나며, 향수 및 화장수는 0.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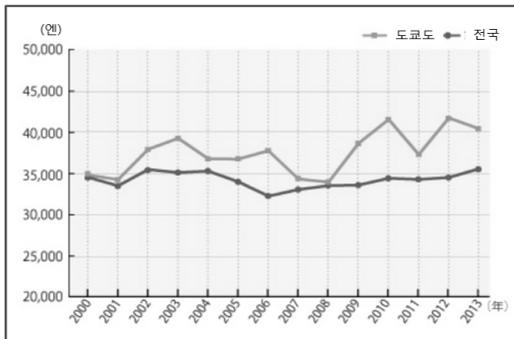
□ 화장품의 세부 개별품목별로 장기적인 출하

추이를 살펴보면 화장수와 파운데이션 등이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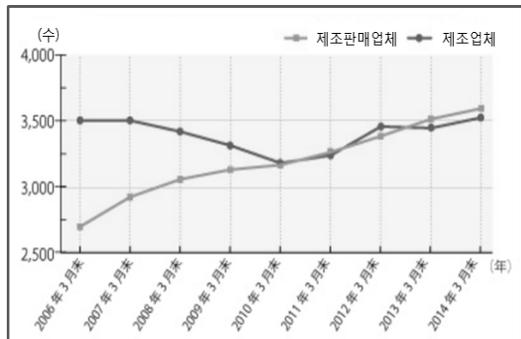
- 최근에는 클렌징크림, 선크림, 남성용피부화장품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립스틱, 손톱화장품, 향수 등의 출하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그림6〉 일본 화장품 지출금액 및 제조판매업체 수 추이

화장품 지출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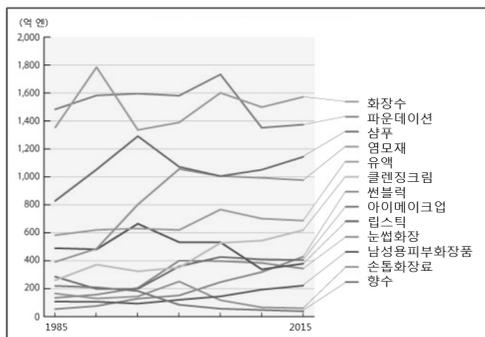


화장품 제조판매 및 제조업체 수 추이



자료: 총무성 통계국 가계조사연보 및 후생성 인구동태조사 결과에서 작성

〈그림7〉 일본 화장품 품목별 출하액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 생산동태통계에서 작성

- 일본의 총리부(總理府) 통계국 가계조사연보에서 도출한 2인 이상 세대의 연간 평균 화장품 지출금액은 전국 수준에서는 2013년에 35,535엔으로 나타남
- 2002년에 35,454엔이었으나 2004년부터

2년 동안 약 3,000엔 감소해서 2006년에 32,000엔대로 되었음

- 그 이후 다시 상승해서 2013년에 35,535엔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반적으로 도쿄도는 전국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이 발표하고 있는 2014년 3월말 전국의 약사관계업체 수는 화장품제조판매업이 3,592개이며 화장품제조업은 3,523개임
- 2006년 이후 제조판매업체 수는 지속하고 상승했으나 제조업체 수는 한 때 감소했다가 201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에 과거 최대치를 기록함
- 결과적으로 화장품을 제조만 하고 판매를 외부 기업에게 위탁하던 제조업체들

이 점차 판매도 자사에서 스스로 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임

3. 일본의 수입시장 상황

1) 주요 업체 동향

- 일본에서 화장품 판매의 주류를 이루었던 방문 및 점포 판매에 비해 효율적으로 수익을 올렸던 것이 카탈로그 중심의 화장품 통신판매 회사였음
 - 그러나 최근 그러한 회사들의 실적이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는 전문가 견해가 지배적임
- 그 중에서도 특히 고전을 하고 있는 회사가 FANCL이며,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 대규모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것이 영향을 미쳐

2016년 3월 결산에서 대폭의 수익감소를 기록하였음

-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회장의 임기를 포기하고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임
- 중견업체인 Dr. Ci:Labo와 HABA연구소 등도 가파르게 성장하는 매출이 멈춘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업체들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인터넷판매의 급성장임
 - 일본통신판매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도 일본의 통신판매시장은 5.8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8% 넘게 증가했으나, 그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통신판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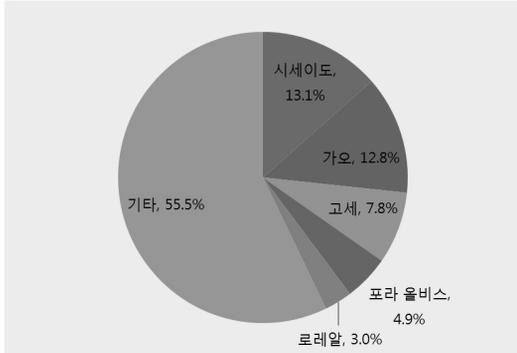
〈표4〉 일본 화장품 유통채널별 주요 업체의 실적 및 특징

분야	업체명	매출액(억 엔)	영업이익	장점 및 주요특징
종합 화장품	시세이도	7,776	276	대형브랜드에 집중투자. 해외사업이 확대되는 반면 국내 점유율을 점진적 하락 추세
	가오	1조 4,017	1,332	Sofina를 중심으로 복수의 브랜드를 전개 중. 가네보와의 합산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
	고세	2,078	226	고급화장품에 강함. 셀프상품도 확대 중. 소매 각사와의 공동개발에도 적극적임
방문 판매	Noevir홀딩스	482	70	고액 상품 판매에 강점. 산하에 도키와(常盤)약품
	POLA ORBIS 홀딩스	1,980	176	방문판매 업계 1위. 백화점에도 전개
통신 판매	DHC	1,084	143	통신판매 화장품 최대 규모.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 중
	FANCL	776	776	무첨가 화장품의 대표 주자. 건강보조식품 진출
	ORBIS	523	107	Pola Orbis 홀딩스 산하기업. 눈오일 화장품이 특징
	Dr. Ci:Labo	359	75	메디컬코스메 분야에서 급성장했으나 최근 성장 정체 현상
	HABA연구소	131	2.8	건강보조식품 분야에 강점
이업종	Rohto제약	1,019	-	1000엔 이하의 저가격대에서 스킨케어에 강점
	후지필름 홀딩스	-	-	2006년 9월에 화장품 시장 진입. 자회사인 후지필름헬스케어 분야도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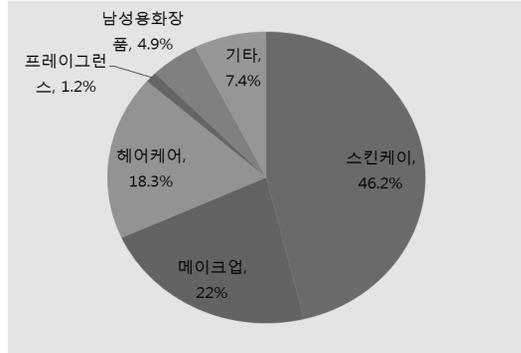
자료: 동양경제신보사(2016), '会社四季報 2016年版 業界地図'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

〈그림8〉 일본 화장품 업체별 시장점유율 및 제품별 출하금액 비중

화장품 시장 업체별 시장점유율



화장품 제품별 출하금액 비중



자료: 東洋經濟新報社, ‘会社四季報 2016業界地図’에서 인용

- 반면 종래의 카탈로그 통신판매에 의존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회사의 실적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시세이도와 로레알 등의 유명 브랜드 상품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종래보다 훨씬 더 선택지가 많아졌음
 - 즉 종래의 카탈로그 중심의 통신판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임
- 일본의 화장품 판매회사들은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통신판매 시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지가 향후 성장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임
 - 이런 상황에서 건설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POLA ORBIS 홀딩스 산하의 ORBIS임
 - 매출은 방문 및 점포 판매를 주로 하는 POLA의 절반정도이지만 영업이익 공헌도는 POLA를 능가하고 있음
 - 특히 ORBIS는 SNS를 활용한 신규 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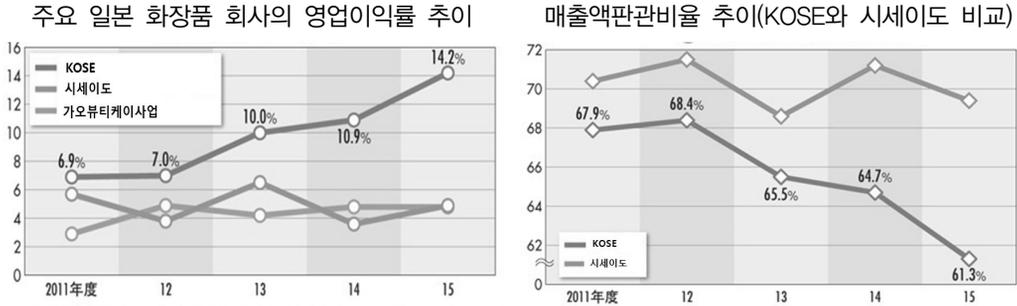
확보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나가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음

- 한편 5년 전에 파산 위기에까지 몰렸던 KOSE가 완전한 부활을 선언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음
 - 일본 화장품업계 3위인 KOSE가 2015년도 결산에서 매출액, 경상이익, 순이익 모든 분야에서 3년 연속 과거최고치를 갱신하는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했음
- KOSE는 2000년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매출액이 2005년에 한계에 봉착했음
 - 2008~2011년은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되며 사세가 기울었던 시기였음
 - 2011년 매출액은 1,665억 엔으로 2015년의 70%에도 미치지 못함
- 2012년 이후 다시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박리다매’를 해서 얻은 결과는 아니었음
 - 오히려 반대로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의 매출액 비율은 2011년의 74.8%에서 2015년은 75.0%로 0.8포인트 증가했음

○ 특히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뺀 본업에서의 수익을 나

타내는 영업이익임

(그림9) 일본 주요 화장품 회사의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판관비율



자료: DIAMOND Online, 'コーセー国内化粧品断トツの収益力 営業利益で王者資生堂に迫る'에서 인용

- KOSE의 영업이익은 2011년의 113억 엔에서 2015년은 346억 엔으로 3배 이상으로 확대됨
- 일본 화장품 업계 1위인 시세이도는 2016년 3월 결산에서 8720억 엔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380억 엔이 될 것으로 보임
- KOSE의 예상 매출은 2540억 엔으로 시세이도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영업이익은 360억 엔으로 시세이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듯 KOSE의 상대적 강점은 수익력이라고 할 수 있음
- KOSE의 영업이익률은 2011년 6.9%로 시세이도와 가네보화장품을 보유하고 있는 가오뷰티케이스업과 큰 차이가 없었음
- 그러나 그 이후의 KOSE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5년은 14.2%로 보합세를 지속하는 경쟁사에 9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벌였고, 이 수준은 세계 최대 규모인 프랑스의 레알(2015년 17.4%)의 실적에 육박하는 것임
- 영업이익률과는 표리일체라고 할 수 있는 판관비를 봐도 명쾌하게 드러남
- 판관비는 광고선전비 및 인건비 등의 상품을 팔기 위해 발생하는 경비를 말함
- KOSE의 판관비는 2011년 113억 엔에서 2015년 149억 엔으로 금액 측면에서는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매출액판관비율 추이를 경쟁사와 비교해 보면 시세이도가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KOSE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유로모니터사가 발표한 세계 프리미엄 화장품회사의 매력도 순위(2014년)에 따르면 일본 기업으로는 시세이도가 4위에 올랐고, KOSE는 12위를 기록했음

- KOSE는 2020년까지 8위 이내에 진입해서 일본 업체로는 2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음

2) 유통 채널별 시장 동향

- 후지경제연구소이 조사해서 매년 발표하는 ‘화장품채널별 마켓트렌드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화장품 판매 채널은 여전히 드럭스토어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13년만 하더라도 네트워크계열 통신판매 업체가 아이체인징 스킨케어의 판매량을 늘리면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통신판매 분야가 증가세로 전환시키며 화장품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음
- 또한 이온그룹과 세븐&아이 그룹 등 소매업의 특정 체인점만을 운영하는 브랜드(스토어브랜드)가 증가해서 드럭스토

어 및 양판점이 확대되었음

- 더욱이 최근 점포수가 증가하고 있는 직영점(통신판매 직영점, 라이프스타일제안형 브랜드) 및 코스메셀렉트샵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화장품 판매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드럭스토어에 이어 두 번째 유통채널로 최근 시장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것이 통신판매 특히 인터넷통신판매이며 양판점도 전체의 12%를 차지하며 3번째로 큰 유통채널로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는 상황임
- 드럭스토어는 그룹화 및 제휴를 통해 대량발주로 제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이로 인해 매장에서 낮은 가격으로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유통채널로부터 수요를 끌어들이는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표5〉 일본 화장품시장 유통채널별 구성비

	2013년	2012년 대비	2014년 전망	2013년 대비 증감률
드럭스토어	6,798억엔	102.3	6,897억엔	101.5%
통신판매	3,061억엔	100.5	3,071억엔	100.3%
양판점(GMS · SM)	2,859억엔	100.5	2,877억엔	100.6%
화장품전문점 · 약국	2,266억엔	98.5	2,235억엔	98.6%
방문판매	2,083억엔	100.6	2,088억엔	100.2%
백화점	1,864억엔	101.2	1,883억엔	101.0%
라이프스타일제안형브랜드	620억엔	105.8	657억엔	106.0%
편의점	728억엔	99.2	723억엔	99.3%
기타	1,165억엔	101.3	1,183억엔	101.5%
업무용	1,783억엔	101.0	1,814억엔	101.7%
합계	2조 3,227억엔	101.1	2조 3,428억엔	100.9%

자료: 富士經濟研究所, ‘化粧品チャンネル別マーケットトレンドデータ 2014-2015’에서 인용

- 양판점은 교외에 위치하는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집객 능력을 증대시키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양상임
- 이온이 30~50대를 겨냥한 제품을 출시하고 세븐&아이홀딩스가 화장품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등 시장 진입에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음
- 한편 화장품 전문점 및 약국은 드럭스토어와 양판점 등의 소매업 저가 제품이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체인화를 추진하여 드럭스토어업체가 되는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임

4. 시장 전망 및 수출 전망

1) 한국의 화장품 경쟁력

- 한국은 주력품목의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급속하게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화장품임
- 최근 몇 년 사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2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수출금액으로는 집적회로와 승용차 등과 같은 수출 상위품목에 비하면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증가율은 다른 품목을 압도하며 앞으로 수출모델로 기대를 받고 있음
- 수출은 주로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아시아 여러 나라의 소득증가에 따른 화장품 시장 확대와 한국산 화장품의 인기와의 상승효과로 아시아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렇듯 화장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2000년대 이후의 한류붐이라고 할 수 있음
- 상품력 못지않게 이미지가 중요한 화장품의 판매는 아시아에 침투한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으로 친밀감을 쌓은 한국의 배우와 가수가 한국 화장품의 매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한류 콘텐츠의 주요 수출국은 중화권, 일본, 동남아시아로 화장품의 수출국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의 화장품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며 적절한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점도 수출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 여성은 상대적으로 자외선 차단과 미백 등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서 화장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음
- 화장품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 신제품을 연이어 신속하게 개발해서 판매하는 한국기업의 스피드 중시 경영스타일이 변화에 민감한 화장품시장에 적합하다는 측면도 간과하기 어려움
-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찍이 일본에서도 커다란 화제가 되었던 BB크림임
- BB크림은 미백·유액·선크림·파운데이션을 모두 합쳐놓은 제품으로 이른바 올인

원 크림으로 독일에서 의료용으로 개발된 제품을 한국의 화장품기업이 개량해서 개발한 것임

2) 일본으로의 수출 전망

- 앞서 확인한바와 같이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으로 수출되는 분량은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음
 - 최근에는 한류에 영향을 받은 고정 고객을 중심으로 한국산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화장품의 對日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한일관계가 경색된 점과 더불어 엔고에 의한 특수외의 거품이 제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특히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 중에서도 스킨케어 화장품에 대해서는 꾸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메이크업 화장품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지금까지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 판매는 통신판매와 버라이어티 스토어를 비롯하여 드럭스토어와 편의점까지 판로가 확대된 상황임
 - 지난 2011년에는 이온이 ‘더 페이스 샵’의 제품 판매를 했었고, 아모레 퍼스픽 재팬도 ‘ETUDE HOUSE’를 추진하면서 일본 내 한국 화장품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음
 - 특히 새롭게 점포를 오픈하면서 한국 화장품을 취급하는 별도의 코너까지 마련하기도 했었음
- 또한 일본의 젊은 세대에서는 블로그, SNS

등 인터넷을 통해 한국 화장품의 인기에 불이 붙은 경우가 많음

- 닛케이 트렌디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일본의 히트 상품 30’에서 2016년 히트 상품으로써 9위에 쿠션파운데이션, 27위에 눈썹틴트 등 한국에서 히트한 화장품이 랭킹에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SNS를 통한 입소문이나 사용후기가 확산되면서 인기를 얻은 사례임
- 일본 최대의 오픈마켓인 라쿠텐이치바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많으며, LG생활건강 등 일부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라쿠텐이치바에 입점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표6〉 화장품 가격대별 시장현황 및 전망

	2013년	전년대비 증감율	2014년 전망	전년대비 증감율
고가	6,608억엔	99.9%	6,633억엔	100.4%
중가	9,292억엔	100.5%	9,333억엔	100.4%
저가	5,545억엔	103.5%	5,649억엔	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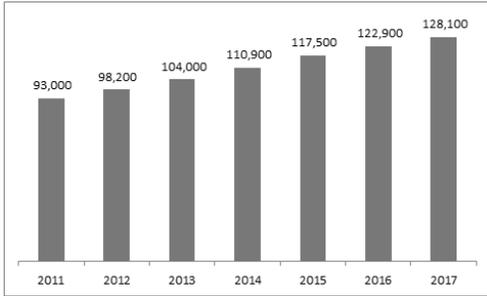
자료: 富士經濟, ‘2012年国内化粧品市場とトレンド調査’에서 인용

-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고정적 팬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급화전략과 차별화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화장품 시장은 가격대별로 보면 여전히 중저가 제품 시장이 크지만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경기위축이 지속되면서 일본에서 저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왔으나 경기회복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고가 화장

- 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다만 인구 감소 특히 여성 인구의 감소 등이 화장품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지만, 남성의 화장품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일본 화장품 시장은 고도의 성숙된 시장으로 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시니어 계층의 화장품 소비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PB 브랜드로의 일본 진출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음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드럭스토어 등의 매장에서 화장품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유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분야임
- 일본에서의 한류 붐에 동승한 화장품 판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일본에서 이미 ‘한국 화장품’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 이외의 지역에 진출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음
 - 일본의 소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바꾸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브랜드파워를 키우는 것이 일본 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임
- 또한 다른 제품에 비해 화장품은 마케팅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지역별 상이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함 비용이 수반될게 됨
 - 따라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아이템 및 브랜드를 일본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전략이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성숙된 단계에 진입한 일본의 화장품 시장에서 최근 오가닉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임
 - 친환경 상품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웰빙의 사회적 인식이 늘어나면서 오가닉 화장품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음
 - 상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관련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제품이미지 확보에 주력해야 함
 - 아직 오가닉 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유기농 성분이 함유되어 관련 인증을 획득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화장품 회사들이 늘어나는 추세임
- 실제 야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유기농(자연파·오가닉) 화장품 시장은 전년대비 6% 증가한 1,175억 엔을 기록했고,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일본에서 오가닉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안전하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일본 국내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이미 2조 엔을 넘어 섰지만 전체 화장품 시장의 5%에 불과함

- 다만 성숙단계에 들어선 일본 화장품 전체 시장을 감안하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많지 않은 분야임

〈그림10〉 일본의 오가닉 화장품 시장 규모 전망 (백만 엔)



자료: 야노경제연구소(2016), ‘自然派・オーガニック化粧品市場に関する調査を実施(보도자료)’에서 인용

- 야노경제연구소 예측에 따르면 오가닉 화장품을 취급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이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오가닉 화장품 시장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분야로 보고 있음
 - 2016년에는 전년대비 4.6% 성장한 1229억 엔, 2017년에는 4.2% 증가한 1281억 엔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국 화장품은 일본시장에서 그동안 BB크림으로 시작해 쿠션파운데이션, 립틴트 등 독특한 아이디어 제품으로 화장품 시장을 선도해 나갔으며, 그 결과 일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구축해 낸 상황임
 - 그러나 한류에 의한 제품구매 현상이 거의 사라지고 난 현재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틈새시장 혹은 제한된 지역한

정 마케팅을 통한 진출과 동시에 충성고객을 확실하게 확대시켜나가는 일본 소비자에 특화된 세련된 마케팅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임

- 시세이도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화장품 업체가 한국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 향상에 따른 제품력 제고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제안 활동이 필요함
- 다만 다양한 검사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등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중장기적이 안목을 가지고 일본 시장에 접근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됨

<참고자료>

- 1) 富士経済研究所, ‘化粧品チャネル別マーケットトレンドデータ 2014-2015’
- 2) 富士経済研究所, ‘国内化粧品市場を価格帯別に調査 2014’
- 3) 코트라, 해외시장정보
- 4) 관세청 통계
- 5)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6) 경제산업성 생산동태통계
- 7) 총무성 통계국 가계조사연보
- 8) 후생성 인구동태조사
- 9) 동양경제신보사(2016), ‘会社四季報 2016年版 業界地図’
- 10) 야노경제연구소(2016), ‘自然派・オーガニック化粧品市場に関する調査を実施(보도자료)’
- 11) 富士経済研究所, ‘2012年国内化粧品市場とトレンド調査’
- 12) DIAMOND Online, ‘コーセー国内化粧品断トツの収益力 営業利益で王者資生堂に迫る’

[동향보고]

일본 경제 동향 _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과 일본경제에의 영향)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4	2015	2015		2016					
			3/4	4/4	1/4	2/4	3/4	8월	9월	10월
경기동향지수 (일치지수, 2010=100)	-	-	-	-	-	-	-	111.9	112.1	-
GDP증가율(연율, %)	△0.0	0.5	1.6	△1.6	2.1	0.7	2.2p)	-	-	-
국내투자	69.5	70.1	17.9	17.2	20.1	15.8	17.2p)	-	-	-
(조엔) 민간설비투자	24.5	23.4	5.0	6.1	6.5	4.3	5.3p)	-	-	-
(조엔) 공공투자	79.0	70.0	17.6	21.8	19.6	12.7	18.6	5.2	8.0	-
해외직접투자(조엔)	2.6	0.5	0.0	0.1	△0.2	△0.1	-	0.0	0.0	-
소비자물가 전기비	2.6	0.5	△0.1	0.0	△0.1	△0.4	-	△0.5	△0.5	-
상승율(%) 전년동기비	3.6	-3.4	3.4	3.2	3.2	3.2	-	3.1	3.0	-
실업률(%)	73.1	75.6	19.0	18.8	17.5	17.0	17.0	5.3	6.0	5.9
수출(조엔)	85.9	78.5	20.0	19.0	17.2	15.5	16.0	5.3	5.5	5.4
수입(조엔)	△12.8	△2.9	△1.0	△0.2	△0.3	1.5	1.0	△0.02	0.5	0.5
무역수지(조엔)	3.9	16.4	5.0	3.6	5.9	4.6	5.7	2.0	1.8	-
경상수지(조엔)	105.8	121.1	122.3	121.5	115.3	108.1	102.4	101.3	102.0	103.8
환율 달러	996	935	957	953	1,043	1,076	1,095	1,098	1,087	1,084
환율 원화(100엔)	0.55	0.36	0.40	0.31	0.051	-0.121	-0.128	-0.086	-0.048	-0.060
금리(10년물, %)	15,460	19,203	19,474	19,035	16,843	16,393	16,500	16,586	16,737	17,045
주가(닛케이)										

주: (p)는 1차 속보치 *실행역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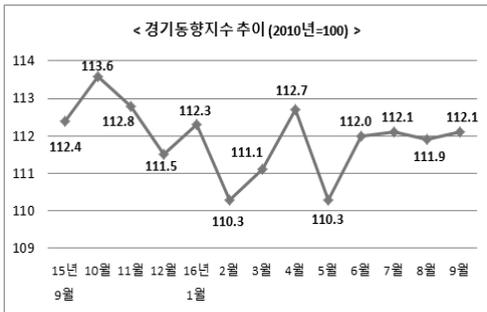
- (경기판단) 완만한 경기회복세
 - '16.9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2.1으로 전월비 0.2p 상승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제자리걸음
 - '16.9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4,961억 엔 흑자
 - '16.10월 수출은 5조 8,699억 엔, 수입은 5조 3,737억 엔
- (환율) 엔저 진행
 - '16.10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03.8 엔으로 전월비 1.8% 엔저
 - * '16.10월 엔/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84엔으로 전월비 0.3% 엔저·원고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완만한 경기회복세

□ (경기기조 판단)

- 일본경제는 경기회복력이 둔화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벗어나고 있음
- 생산과 수출은 회복, 고용과 소득은 건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소비는 저점을 통과하고 있으나 태풍 등 기후불순에 따른 일시적인 약세가 보이고 있음



자료: 내각부

-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9월 경기동향지수 (일치지수, 2010년=100)는 112.1로 전월비 0.2p 상승
- 전월과 비교 가능한 8개 지표 중 5개의 지표가 전월보다 상승한 가운데, 소매업 판매, 자동차 판매, 중소기업출하지수 등이 전월을 상회
- 일본 내각부의 경기기조판단은 1년 4개월째 담보상태를 유지

□ (전망)

- 앞으로 일본경제는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회복, 공공투자의 진척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특히 지난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28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과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완만한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엔고반전과 소비 부진 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이것이 경기의 발목을 잡고 성장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는 있음
- 수개월 이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100.5로 전월보다 0.4p 저하

<GDP>

- 일본 내각부가 11월 14일 발표한 2016년 3분기의 실질GDP성장률(1차 속보치)은 전기비 0.5%, 연율 환산으로는 2.2%로 3분기 연속 플러스
-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호조가 GDP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한편, 8월의 태풍 등 기후불순의 영향을 받아 소비는 약간 증가하는 데 그침
- GDP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외수는 수출이 2.0% 증가, 수입은 0.6% 감소
-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장치와 스마트폰부품, 철강제품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철광석과 원유, 액화천연가스 등의 수입은 감소
- 실질GDP의 내역은 외수의 기여도가 0.5%로 2분기 만에 증가한 반면, 내수의 기여도는 3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0.1%에 그침
- 개인소비는 0.1% 증가로 3분기 연속 플

- 리스인 가운데, 휴대전화와 자동차의 판매는 증가한 반면, 태풍 등 기후불순의 영향으로 음료판매가 감소
- 설비투자는 0.03% 증가에 그쳤으나 3분기 만에 플러스, 공공투자는 0.7% 감소
 - 민간주택은 주택론의 금리하락에 힘입어 2분기에 이어 2.3% 증가
- IMF는 2016년 일본의 GDP성장률에 대

한 당초 전망치 0.5%를 0.6%로 상향조정했으나, 소비세 인상 연기 등이 주된 요인으로 성장력은 약하다고 지적하고, 일본은행이 내건 물가상승률 2%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임금인상을 촉진하는 소득정책의 확충을 요구하는 한편 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도 과제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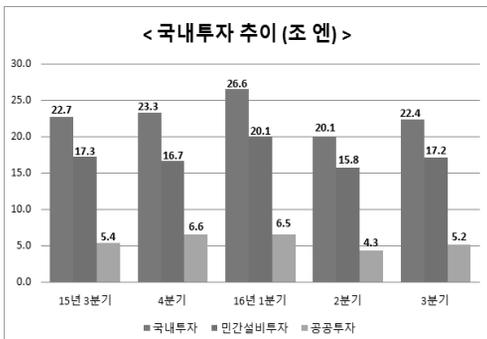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구 분	2014	2015	2014	2015			2016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전기비			0.6	1.2	△0.3	0.4	△0.4	0.5	0.2	0.5
전기비연율	△0.0	0.5	2.3	5.0	△1.3	1.6	△1.6	2.1	0.7	2.2
전년동기비			△0.9	△1.0	0.8	1.9	0.7	0.2	0.6	0.9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국내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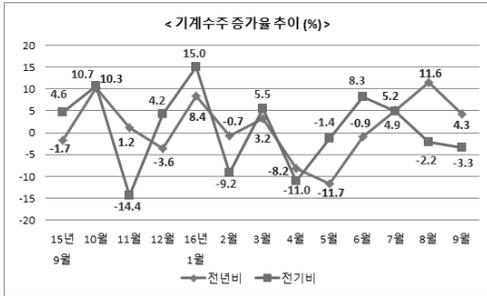
- '16.3분기 국내투자 GDP의 13.9%
- '16.3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 공공투자: 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11.2% 증가한 22.4조 엔으로 GDP의 18.2%



자료: 내각부

□ (민간설비투자)

- '16.3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8.4% 증가한 17.2조 엔, 국내투자의 76.8%를 차지
- 실질기준으로는 엔고와 세계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기비 0.03% 증가에 그침
-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9월 조사)에 의하면 2016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전 산업에서 5년 연속 증가, 제조업은 6년 연속 증가, 설비투자의 과잉감은 회복상태
- 다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9월 기계수주는 전월에 이어 3.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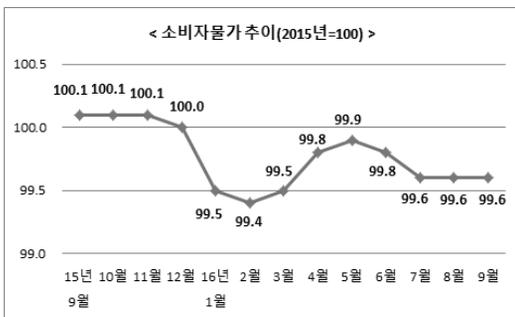


자료: 경산성, 내각부

- 일본 내각부는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꺾이고 있다고 하면서 설비투자에 대한 기조판단을 4개월 만에 하향수정

□ (공공투자)

- '16.3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1.3% 증가한 5.2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3.2%를 차지
- 최근 공공투자의 기반은 탄탄한 편
 - 8월의 공공공사 거래액은 전월비 1.3% 감소하였으나 9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년비 18.1% 증가, 10월의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년비 41.4% 증가
- 2016년 8월 2일 각의에서 결정된 28조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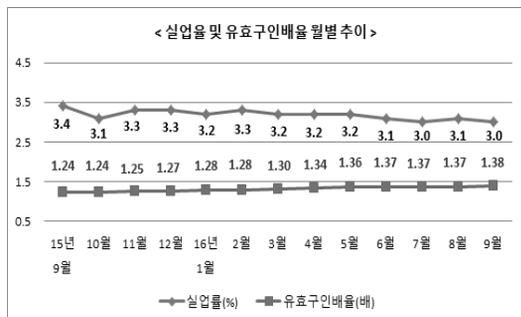
자료: 총무성

규모의 경제대책 등이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투자에 의한 경기부양효과가 가시화될 전망

<소비자물가>

□ '16.9월 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제자리 걸음

- '16.9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전년비 99.6(2015년=100)으로 전월비 상승률은 0.0%
 - 전년동월비로는 에너지가격 하락의 영향에 따른 전력요금 등의 하락으로 0.5% 하락
 - 그러나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비 0.0%로 3년 만에 낮은 수준
 -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2% 물가상승률 목표의 달성시기 보류를 검토
- 앞으로 에너지가격은 다소 회복될 것이나 엔고 및 가계의 소비절약 등으로 전년 동기비 소비자물가는 하락세를 계속할 전망



자료: 후생노동성

〈실업률〉

□ 고용사정 개선 지속

- '16.9월 완전 실업률은 전월비 0.1%p 하락한 3.0%
 - 여성의 완전실업률은 2.6%로 23년만에 낮은 수준인데 비하여, 남성은 3.3%
 -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노동수급의 꺾박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유효구인배율은 0.01p 상승
 - '16.9월 유효구인배율은 1.38배로 전월보다 0.01p 상승, 25년 1개월 만에 높은 수준
 - 방일외국인의 증가를 배경으로 숙박·음식·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 구인수가 증가
-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무역수지 흑자폭 2개월 연속 확대

- (종합) 수입의 감소반전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 '16.10월 무역수지는 4,961억 엔 흑자로 2개월 연속 흑자
 - 수출의 감소에도 수입의 감소반전이 무역흑자에 기여
 -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전월의 5,462억 엔에서 3,412억 엔으로 크게 축소된 한편,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5,872억 엔에서 5,803억 엔으로 축소
 - 對 한국 무역수지흑자는 전월의 2,142억 엔에서 1,919억 엔으로 축소

〈2016년 10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2016. 9월			2016. 10월			2016. 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출	6.0	-6.9	13.2	5.9	-10.3	-1.7	57.4	-9.3
수입	5.5	-16.3	3.8	5.4	-16.5	-1.8	54.2	-14.4
수지	0.5	-	-	0.5	373.5	-0.4	3.3	-

자료 : 재무성

- (수출) '16.10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감소
 - '16.10월 수출은 전월대비 1.7% 감소한 5조 8,699억 엔
 - 전년동월비로는 엔고로 인하여 10.3% 감소
 - 수출물량도 전월대비 3.0% 감소
 - 5대 수출 품목은 전월과 변동이 없는 가

운데, 자동차와 원동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

- 수출증가품목 중 철강의 수출 증가폭이 전월비 1.1%로 가장 큼
- 수출감소품목 중 자동차의 수출 감소폭이 -2.7%로 가장 큼

〈2016년 10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순위	품목	2016. 9월			2016. 10월			2016. 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10,219	-7.2	31.5	9,942	-11.3	-2.7	92,069	-6.2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186	-11.8	7.3	3,191	-7.1	0.2	29,889	-9.8
3	자동차부품	3,057	2.9	17.8	3,057	-0.9	0.0	27,921	-3.5
4	철강	2,285	-20.9	-2.0	2,311	-19.3	1.1	23,538	-24.9
5	원동기	2,042	-5.1	19.8	2,025	-8.1	-0.8	19,549	-9.8

자료 :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
 -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폭이 8.2%로 가장 큼
 - EU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5.3%로 가장 큼
 -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2.3% 감소

〈2016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순위	국가	2016. 9월			2016. 10월			2016. 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1,676	-8.7	20.2	11,971	-11.2	2.5	115,619	-8.5
2	중국	9,930	-10.6	2.5	10,748	-9.2	8.2	99,573	-9.6
3	ASEAN	8,678	-9.3	6.9	8,576	-12.4	-1.2	84,898	-12.4
4	EU	6,872	0.7	16.3	6,505	-9.5	-5.3	66,378	0.6
5	한국	4,283	-1.6	4.2	4,184	-4.6	-2.3	40,840	-9.6
6	대만	3,765	4.4	6.8	3,667	-2.8	-2.6	34,942	-7.8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입) '16.10월 수입도 금액·물량 모두 감소
 - '16.10월 수입도 전월비 1.8% 감소한 5조 3,737억 엔
 - 전년동월비로는 유가하락과 엔고로 인하여 16.5% 감소
 - 수입물량도 전월비 2.5% 감소
 - 전월과 비교하여 반도체 등 전자부품 대신에 의약품이 5대 수입품목에 포함
 - 의약품이 유일한 수입증가품목으로 전월비 19.3% 증가
 - 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의류 및 동부속품의 감소폭이 -25.0%로 가장 큼

〈2016년 10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순위	품목	2016. 9월			2016. 10월			2016. 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원유	4,547	-28.6	-7.4	3,989	-27.2	-12.3	44,184	-37.1
2	통신기	3,401	-4.5	121.3	3,321	-3.2	-2.4	23,434	-5.0
3	액화천연가스	2,491	-40.1	-8.2	2,425	-32.1	-2.6	26,594	-43.4
4	의약품	1,992	2.1	-17.0	2,376	-13.4	19.3	22,959	-0.5
5	의류 및 동부속품	3,109	-20.9	-1.3	2,332	-26.5	-25.0	26,316	-8.6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8% 감소
- 수입증가 지역·국가 중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폭이 6.3%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5.8% 증가

〈2016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순위	국가	2016. 9월			2016. 10월			2016. 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5,392	-16.7	17.3	14,160	-17.9	-8.0	127,413	-21.4
2	ASEAN	8,121	-16.6	-2.7	8,271	-17.1	1.8	75,276	-24.6
3	EU	6,498	-3.7	-3.5	6,749	-12.0	3.9	60,343	-14.4
4	미국	5,804	-6.1	-4.7	6,168	-9.9	6.3	54,376	-20.1
5	호주	2,799	-13.6	7.9	2,877	-7.4	2.8	23,764	-33.1
6	한국	2,141	-18.1	-0.9	2,265	-11.1	5.8	19,837	-27.2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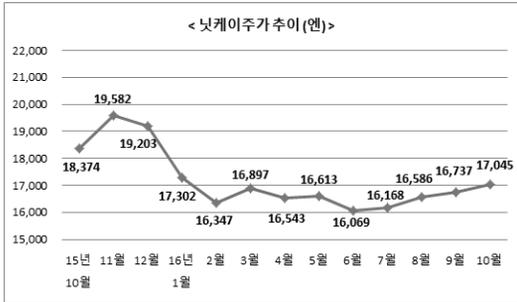
3. 엔저·주가상승·마이너스금리 확대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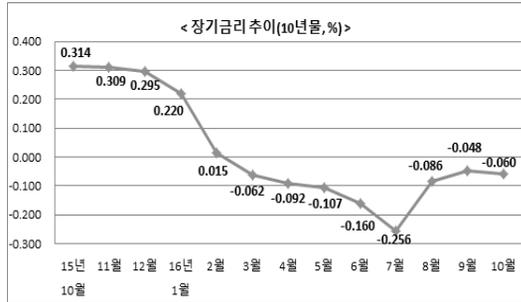
- '16.10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1.8% 상승한 17,045엔

□ (금 리)

- '16.10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전월의 -0.048%에서 -0.060%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



자료: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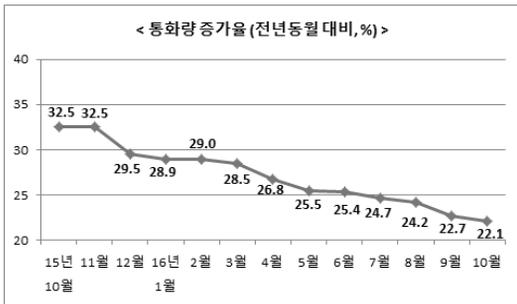


자료: 일본상호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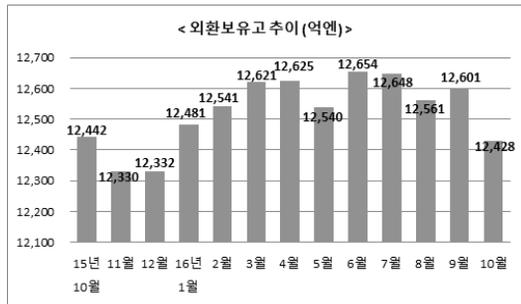
□ (통화량)

- '16.10월 본원통화(머니터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22.1%



자료: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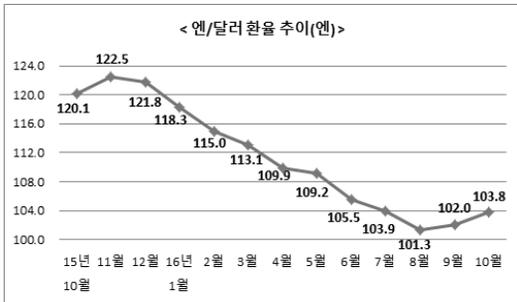


자료: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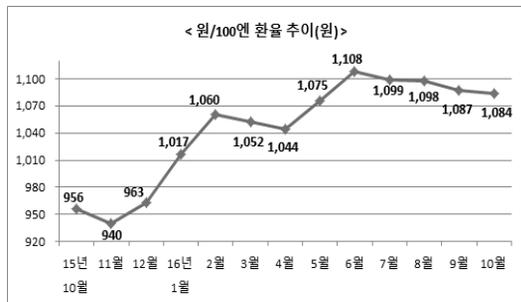
□ (환율)

- '16.10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1.8% 상승한 103.8엔(엔저)

- 11월 들어 11월18일 엔화 가치가 약 4개월 만에 달러당 110엔대까지 하락



자료: 일본은행



자료: 한국은행

- 최근 엔저반전은 EU중앙은행(ECB)에 의한 양적완화의 장기화 관측,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및 장기금리 상승 등에 따른 엔 매도 확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론 후퇴, 영국의 EU탈퇴 결정 등 엔고반전 요인은 남아있음
- '16.10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84원으로 전월의 1,087원에 비하여 0.3% 엔저·원고

4. 해외직접투자 증가

-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급증이 전체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주도
- '16년 9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79,783억 엔으로 전월비 54.4% 증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2015	2015		2016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8월	9월	1-9월	
금 액	696,396	176,072	217,554	196,248	127,675	186,332	51,687	79,783	510,255	
증가율	전기비	-11.8	19.0	23.6	-9.8	-35.0	45.9	-5.8	54.4	-
	전년동기비	-11.8	2.8	9.7	26.7	-13.7	5.8	-15.2	28.8	6.6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국가별	2015		2016							
	금액	증가율	2분기		3분기		9월		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대세계	696,396	-11.8	127,675	-35.0	186,332	45.9	79,783	54.4	510,255	
아시아	141,593	19.0	18,329	-19.8	17,298	-5.6	6,484	27.4	59,766	
중 국	14,659	1.1	3,230	1.6	2,979	-7.8	1,097	19.5	9,509	
한 국	4,714	-20.6	900	24.8	729	-19.0	201	-30.2	2,549	
북 미	237,283	-2.9	28,029	-65.8	31,421	12.1	10,097	-3.1	143,161	
미 국	230,435	-2.9	26,166	-67.7	30,391	16.1	9,822	-1.4	139,297	
중남미	22,758	49.4	1,844	-48.4	20,084	989.2	3,871	258.4	26,985	
유 럽	269,749	-30.4	72,598	-12.7	113,720	56.6	57,985	74.3	270,265	
대양주	19,126	1.2	3,190	9.8	1,743	-45.4	598	-4.5	7,876	
중동	1,805	46.9	433	-46.9	136	-68.6	21	-63.2	1,409	
아프리카	6,843	7.3	2,153	75.8	1,930	-10.4	727	5.7	5,378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 중남미,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 급증
 -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월비 258.4% 증가
 - 최대 투자지역·국가인 유럽에 대한 직접투자도 74.3% 증가
- 북미 지역 및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각각 3.1% 및 1.4% 감소
- **對 한국 직접투자는 201억 엔으로 30.2% 감소**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과 일본경제에의 영향

- 예상 밖의 트럼프의 승리로 미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인 일본경제에 큰 영향이 예상됨
 - 트럼프의 당선으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엔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엔화 가치가 크게 상승
 - 파이낸셜 뉴스에 의하면, 엔화 가치는 2016년 들어 중국경제의 경착륙, 브렉시트 우려 등으로 달러에 비해 16% 올랐고, 트럼프 당선확정 직후에는 4% 더 상승
 - 특히 아베 총리가 구조개혁의 기폭제로 밀어붙였던 TPP가 최소한 재협상이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어 아베노믹스에 차질이 발생하고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음
- GDP, 개혁
- 트럼프의 승리로 엔화 가치 상승과 주가 하락이 장기화되는 경우 아베노믹스에 영향은 피할 수 없음. 다이와연구소의 시산에 의하면, 트럼프의 승리로 실질GDP는 0.71%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아베노믹스의 한 기동인 노동개혁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
 - 아베정권은 외국인노동자 수용을 확대할 계획이나,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는 이민자들에게 고용을 뺏긴다고 하여 멕시코 국경에 벽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왔음
 - 이에 일본의 외국인 수용에 관한 논의도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있음
 - 한편, 일본기업에 대한 영향은 불투명한 부분이 큼. 트럼프는 제약회사가 의료보험제도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음
 - 일본의 의약품메이커들로서는 미국시장에서의 불확정한 요소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미국 텍사스주에서 계획 중인 고속철도는 일본의 신칸센방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프라정비에 대한 트럼프의 공식적인 반대는 없으나 실제 대응은 불투명
- TPP, 통상
-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 지목한 구조조정 역시 트럼프 당선으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 TPP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의 당선으로 TPP와 구조조정을 연계했던 아베의 구상에도 차질이 발생

- 아베 총리는 TPP가 발효되면 지금까지 경쟁의 사각지대에 있던 농업 등의 경제부문이 외국 시장에 직접 노출돼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면서 TPP를 밀어붙였음.
- TPP에 반대하는 트럼프는 자유무역이 국내 산업이나 고용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호주의론 자라는 점에서, 미국과 함께 자유무역의 기치를 들어왔던 일본정부는 앞으로 통상 분야에서 어려운 대응이 예상됨
- 정부의 통상전략이 바로 변하는 것은 아니나, 목표달성시기가 멀어질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일본정부는 2018년까지 FTA체약국과의 무역비율을 전체무역의 70%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TPP 발효가 필수적임. 현재 일본은 TPP승인을 위한 관련 법안을 심의중인데, 미국이 TPP를 철회하는 경우 발효는 없었던 일로 됨
- TPP 이후에는 여러 자유무역교섭이 대기하고 있으나 장래가 불투명하며 앞으로 많은 시간이 허비될 것으로 전망
- 그 밖에도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21개국·지역이 참가하는 APEC에서는 TPP 등을 토대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라 불리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설립 구상이 있음
 -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이 제안한 틀인 만큼 주축이 빠지면 와해할 가능성이 있음
 - TPP 진영의 미일과 중국, 러시아 등과의 골은 아직도 깊어, 미국이라고 하는 파트너를 잃으면 일본은 고립무원해질 우려도 있다는 분석임
- **트럼프의 성장중시정책, 일본경제에 플러스 영향 가능성도**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나 이민배척자로 스포트라이트 되고 있는 트럼프이나 그의 경제비전은 어디까지나 미국부활을 지향한 성장 중시에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이 안전통화인 엔화를 직격할 우려가 있기는 하나, 대담한 트럼프 유의 세계 등이 실현되는 경우 일본경제에 플러스가 된다는 전망도 있음
 - 트럼프는 연간 2%정도에 그치고 있는 경제성장목표를 3.5%로 설정, 중간층세대에 대한 대형 소득감세, 상속세 폐지, 나아가 연방법인세인하(35%-15%)등을 들고 나왔음
 - 일본의 미일경제연구회는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규제완화와 인프라 투자촉진이, 대형 감세와 맞물려 미국의 재정을 확장시키는 경우, 미국의 수요자극 → 일본의 외수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망
 - 일본 외무성은 최근 2년간 미국의 신정부 이행팀에 제언하기 위해 유식자들로 구성된 외상 직속 미일경제연구회를 발족 민주, 공화 양후보의 정책분석을 실시해왔음
 - 또한 환율조작국으로부터의 강력한 보호를 명언한 트럼프의 태도는 달러약세 유도로도 상기시키나 트럼프의 환율에 대한 입장은 미지수인 만큼, 만약 트럼프 스스

로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엔이 급등하면 일본의 환율개입도 정당화될 수 있음

- 한편으로 성장축진에 따른 일정 정도의 금리상승과 달러강세라면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선불리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음
- 나아가 강력한 미국경제는 보호주의와 표리일체인 만큼, 트럼프와 공화당이 NAFTA재교섭이나 TPP 철회 등으로 고립주의로 치닫게 되면, 미일간의 통화, 통상마찰이 터질 사태도 부정할 수 없음
- 트럼프 정권이 성장과 비즈니스를 중시한다면 그러한 위기상황이 초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다시 확대

□ (총 합)

- '16.10월 대일무역적자가 5개월 만에 전월비 50백만 달러 증가한 2,114백만 달러
- 대일 수출의 감소반전이 대일무역적자 확대에 기여
- 9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5.3%에서 5.0%로 저하된 동시에, 대일 수입의 의존도도 전월의 12.5%에서 12.1%로 저하**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8.6%에서 8.6%로 불변**

(2016년 10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6. 9월			2016. 10월			2016. 1-10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대일 수출	2,167	6.3	8.1	2,105	-1.5	-2.9	19,863	-7.6
대일 수입	4,231	14.1	1.8	4,219	9.5	-0.3	38,638	-0.4
무역 수지	-2,064	393	-89	-2,114	400	50	-18,775	1,465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6. 10월 대일 수출은 2,105백만 달러로 전월비 2.9% 감소

-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기간 중 총수출은 2.7% 증가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6. 9월	6.3	8.1	-5.9	1.8	-16.3	3.8
2016. 10월	-1.5	-2.9	-3.2	2.7	-16.5	-1.8
2016. 1-10월	-7.6	-	-8.0	-	-14.4	-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수출품목에는 플라스틱 대신에 농산물이 포함
- 대일 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산업용전자

제품의 수출 증가폭이 26.7%로 가장 큼

- 대일 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정밀화학제품의 수출 감소폭이 -18.7%로 가장 큼

〈2016년 10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6. 9월			2016. 10월			2016. 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계	2,167	6.3	8.1	2,105	-1.5	-2.9	19,863	-7.6
1	철강제품	286	15.9	4.8	293	14.1	2.4	2,552	2.4
2	전자부품	186	4.5	21.6	173	-4.3	-7.0	1,559	-18.9
3	광물성연료	189	-38.6	-11.3	170	-40.9	-10.0	1,699	-42.3
4	산업용전자제품	116	3.3	-4.9	147	-6.1	26.7	1,169	-39.5
5	석유화학제품	136	35	4.6	124	43.5	-8.8	1,084	-3.1
6	정밀화학제품	139	15.3	21.9	113	-1.7	-18.7	1,195	-0.3
7	수송기계	130	30.2	38.3	112	0.3	-13.8	1,169	15.3
8	금속광물	106	13.5	-22.6	107	37.3	0.9	953	8.8
9	기계요소공구·금형	93	17.0	13.4	93	19.2	0.0	912	15.7
10	농산물	72	-2.6	0.4	88	8.5	22.2	770	-4.9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입)

○ '16.10월 대일수입은 4,219백만 달러로 전월비 0.3% 감소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의 증가와는 대조적인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반영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6. 9월	14.1	1.8	-1.7	-3.0
2016. 10월	9.5	-0.3	-4.8	3.1
2016. 1-10월	-0.4	-	-10.0	-

○ 대일수입은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품목은 변함없는 가운데, 순위에서 전자부품이 정밀기계를 제치고 1위로 랭크
- 대일 수입 증가품목 중에서는 전자부품

의 수입 증가폭이 9.3%로 가장 큼
- 대일 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정밀기계
의 수입 감소폭이 -14.3%로 가장 큼

〈2016년 10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6. 9월			2016. 10월			2016. 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 계	4,231	14.1	1.8	4,219	9.5	-0.3	38,638	-0.4
1	전자부품	483	-18.1	0.0	528	5.2	9.3	4,892	-4.8
2	철강제품	468	9.0	3.3	463	-4.9	-1.1	4,389	-10.8
3	정밀기계	488	221.6	26.4	418	99.3	-14.3	3,032	33.5
4	정밀화학제품	355	14.0	-5.6	366	5.7	3.1	3,428	7.2
5	석유화학제품	298	-14.1	-12.6	308	-11.7	3.4	3,150	-22.7
6	기초산업기계	286	4.8	10.0	297	-7.8	3.8	2,581	-3.9
7	산업용전자제품	285	27.9	-1.0	284	35.0	-0.4	2,642	23.3
8	수송기계	238	11.1	-0.8	256	42.8	7.6	2,136	5.4
9	플라스틱제품	221	15.9	1.4	216	11.3	-2.3	1,973	0.9
10	산업기계	173	3.9	-4.9	167	-18.5	-3.5	1,754	0.8

자료 : 한국무역통계

2.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감소

- (동향) '16.3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큰 폭 감소
 - '16.3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194백만 달러로 전기비 63.5% 감소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는 28.4% 감소
- 전년동기비로는 12.6% 감소
- 건수로는 전기비 20.7% 감소
- '16.1-3분기 중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886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25.9% 감소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2014		2015		2016.1분기		2016.2분기		2016.3분기		2016.1-3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352 (21.3)	2,488 (-7.5)	315 (-10.5)	1,665 (-33.1)	61 (-22.8)	161 (-65.8)	82 (34.4)	531 (229.8)	65 (-20.7)	194 (-63.5)	208 (-11.9)*	886 (-25.9)*
전체 외국인투자	2,463 (-5.6)	19,003 (30.6)	2,698 (9.5)	2,0909 (5.1)	667 (-13.8)	4,241 (-44.5)	760 (13.9)	6,279 (48.1)	716 (-5.8)	4,495 (-28.4)	2,144 (11.4)*	15,049 (13.4)*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

- 반도체 세정공정용 특수소재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일본 강소기업 센트럴글래스(주)가 경기도 평택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해 신규 공장을 조성
- 도쿄에 본사를 둔 동사는 PDP TV용 유리

리 기관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의료용 마취제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인 유리, 화학 전문기업으로, 연 매출액은 약 2,354억 엔(약 2조 5,600억 원)에 달함 (2016.10.24. 파이낸셜 뉴스)

- 도레이가 구미에 신공장 건설 착공

- 도레이는 2021년 이후 신공장을 가동시켜 기저귀에 사용되는 부직포 등을 생산할 예정인데, 신공장계획을 포함하여 3,000억 엔 이상을 투자하고 있음(2016.10.20. 닛케이)

□ (시사점)

- 최근의 엔고, 일본 해외투자기업들의 유턴 사례,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 등을 對韓 투자 유도에 최대한 활용하고, 한일간 정치적 교착상태 완화 등을 통한 차별화된 對韓 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

주요 경제 일정

<11월 실적>

일자	주요 내용
2	- 아베 총리 · 아오키 사다키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부장관 회담(도쿄)
3	- 미일 재계 회의(도쿄)
7	- 일왕 공무 부담 축소 등에 관한 지식인 회의(총리관저)
9	- '16년도 상반기 국제수지 발표(재무성)
11	- 아베 총리 · 모디 인도총리 회담(도쿄)
14	- 7~9월(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내각부)
17	- 아베 총리 ·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 회담(뉴욕) - APEC 각료회의(페루)
18	- APEC 정상회의(페루) - 아베 총리 ·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 회담(페루)
19	- 아베 총리 ·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담(페루) - 아베 총리 ·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회담(페루)
20	- 아베 총리 · 쯘딘 랑 베트남 국가주석 회담(페루)
21	- 자민당, 공명당 세제 조사회 개최 * '17년도 세제개정을 위한 논의 개시 - 10월 무역통계 발표(재무성) - 아베 총리 아르헨티나 방문, 마크리 대통령과 회담 * 디아르헨티나 경제 포럼 개최 - 경제동우회 창립 70주년 기념식(도쿄)
24	- TPP 특별위원회에서 집중 심의
25	- 10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총무성)
28	- 자민당 및 공명당 대표 회담(총리관저)
29	- 10월 완전실업률 발표(총무성) - 10월 유효구인배율(후생노동성)

<12월 예정>

일자	주요 내용
3	- 日러 외무장관 회담(모스크바)
4	- 한중일 30인 회의(시즈오카)
8	- 일본 최대 환경전시회 "Eco Products2016" 개최(도쿄)
10	- 노벨상 수상식
18	- 일본의 유엔 가맹 60주년

한일경제협회 신규가입 회원사

▶ 상임이사

■ CJ건설



이수철 고문

- 설립 일 : 1956. 11. 05
- 소재 지 : 서울시 서초구
- 종업원수 : 510명
- 업 종 : 건설업

▶ 일반회원사

■ HG신소재



신현근 사장

- 설립 일 : 2008. 11. 15
- 소재 지 : 경기도 시흥시
- 종업원수 : 4명
- 업 종 :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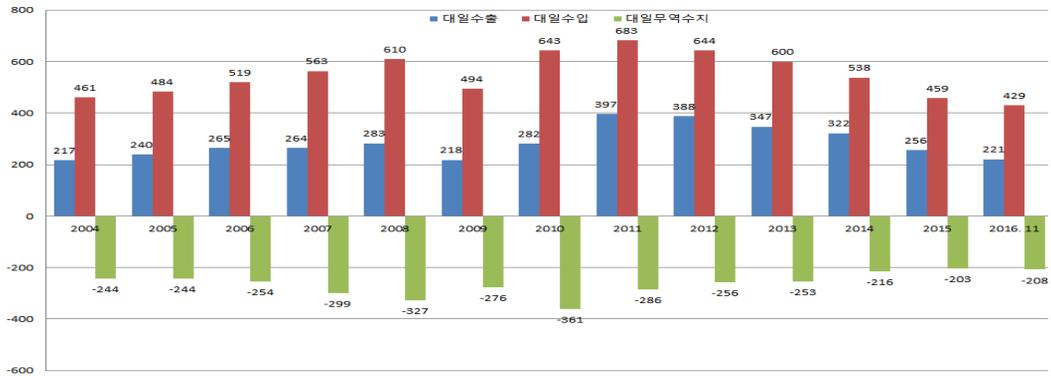
■ 한국닛켄(주)



와카이슈지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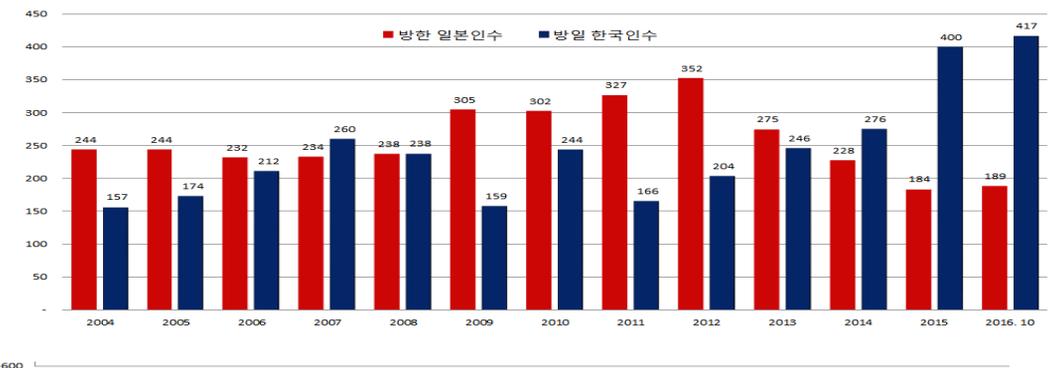
- 설립 일 : 1987. 01. 31
- 소재 지 : 인천광역시
- 종업원수 : 86명
- 업 종 : 기계

한일 교역 현황 : 對 일본 연도별 수출입 실적(04~16.11)/(단위 : 억불)



구분	총수출 (A)	총수입 (B)	총교역액 (C=A+B)	대일수출 (D)	대일수입 (E)	총대일교역 (F=D+E)	대일수출비중 (G=D/A)	대일수입비중 (H=E/B)	대일무역수지 (I=D-E)
2004	2,538	2,245	4,783	217	461	678	8.5%	20.6%	-244
2005	2,844	2,612	5,456	240	484	724	8.4%	18.5%	-244
2006	3,255	3,094	6,348	265	519	785	8.2%	16.8%	-254
2007	3,715	3,568	7,283	264	563	826	7.1%	15.8%	-299
2008	4,220	4,353	8,573	283	610	891	6.7%	14.0%	-327
2009	3,635	3,231	6,866	218	494	712	6.0%	15.3%	-276
2010	4,664	4,252	8,916	282	643	925	6.4%	15.1%	-361
2011	5,552	5,244	10,796	397	683	1,080	7.2%	13.0%	-286
2012	5,479	5,196	10,675	388	644	1,032	7.1%	12.4%	-256
2013	5,596	5,156	10,752	347	600	947	6.2%	11.6%	-253
2014	5,726	5,255	10,981	322	538	860	5.6%	10.2%	-216
2015	5,268	4,365	9,633	256	459	715	4.86%	10.52%	-203
2016.11	4,505	3,676	8,181	221	429	650	4.91%	11.67%	-208

한일 인적교류 현황 : 對 일본 연도별 출입국 실적('04~'16.10)/(단위 : 만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0
방한 일본인수	244.3	244	232	221.6	235.8	303.2	300.4	327	351.8	274.7	228	183.8	188.7
방일 한국인수	158.8	174.7	211.7	260.1	238.3	158.7	244	165.8	204.3	245.6	275.5	400.2	416.9
계	403.1	418.7	443.7	481.7	474.1	461.9	544.4	492.8	556.1	520.3	503.5	584	605.6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JNTO)

회원가입안내

1. 개요

한일경제협회(www.kje.or.kr)는 자매기관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www.kjc.or.kr)과 함께 한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립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한일 양국 경제인의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구축은 물론 활발한 인적교류 등 민간에 의한 경제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 회원 자격

우리협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해와 협조 및 친선을 위하여 유대를 갖고 있거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국내외 개인, 법인 및 단체

3. 회원가입 및 회비

- 회원가입 :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회비와 연간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회비구분

구 분	전년도 매출액기준	입회비	년회비
일반회원사	50억 이상	10만원	80만원
	50억 미만	10만원	20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424-04-104432 한일경제협회

4. 중점사업

- 한일경제인회의 사업 (년 1회)
-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년 1회)
-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교류협력 사업 (한큐슈, 한호쿠리쿠, 환황해경제교류)
- 한일청소년(고교생교류캠프)교류 사업
- 기타 한일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사업(한일통상포럼, 업종별 교류회 등)
- 회원사 간담회 (주일대사초청간담회, SJC와의 간담회, 친선교류활동 등)

5. 회원사 특전

- 협회주최 및 자매기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연구조사, 보고서 제공
- 협회 소식지 및 일본정보[지식리포트] 제공
- 협회 보유자료 열람
- 일본기업 소개·비즈니스 정보·신기술동향 등의 일본기업정보 제공 (수시)
-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지도, 일본연수 사업 참여

6. 문의처

- 06059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 18-4(논현동) 한일재단B/D 4층
김경호 부장 (TEL: 02-3014-9886 E-mail: jhkim@kje.or.kr FAX: 02-3014-9899)

